

Proposal to add the “6 letters” (Hangul Jamo)

OBAYASHI Muneaki

2019/06/21

Introduction

a. New Korean Orthography

In 1948, the New Korean Orthography was established. The orthography was innovative in any sides. First, it provides **New characters called “6 letters”** for morphophonologic spelling(形態音素論的表記). Second, it tightens up “spellings consistency”.

Ultimately, in 1958 the orthography was canceled because of purge of Kim Tu Bong who is the main creator of the orthography.

But, the orthography affected orthographies of DPR of Korea until today. (And the theses written by the orthography is quoted by other theses in DPR of Korea, until today¹.

Therefore, the record of the orthography needs to be able to be archived as plain text for study of Korean or DPRK’s language historie²s. To this “6 letters” needs be added to Unicode.

b. “6 letters”

6 letters mean thess (ॲ ߱ ߳ ߴ ߵ ߷) letters. And 2 letters(߱ ߳) are already added in unicode, because these are recycled charactors. “߱”(LIEUL) means /l/, “߳”(RIEU) means weak/r/, “ߴ”(UEUB) means /w/, and “߷”(BANMOEUM-I) means /j/.

SO, as mentioned above, I propose to add the 6 letters.

¹ For example, base of construction of current orthography was seted in the orthography.

² For example, one of South Korean theses(Bibliography 4) refer to the orthography.

PROPOSED CHALACTERS

Hangul Jamo Extended-A

6 Letters initial consonants

A97D ㄱ HANGUL CHOSEONG RIEU

A97E ㄴ HANGUL CHOSEONG LIEUL

A97F ㅂ HANGUL CHOSEONG UEUB

Hangul Jamo Extended-B

6 Letters medial vowels

D7C7 ㅓ HANGUL JUNGSEONG BANMOEUM-I

6 Letters final consonants

D7FC ㄹ HANGUL JONGSEONG RIEU

D7FD ㄴ HANGUL JONGSEONG LIEUL

D7FE ㅂ HANGUL JONGSEONG UEUB

BIBLIOGRAPHY

1. 조선어 신 철자법 (Book)

→https://ko.wikisource.org/wiki/%EC%A1%B0%EC%84%A0%EC%96%B4_%EC%8B%A0_%EC%B2%A0%EC%9E%90%EB%B2%95 (Text)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C%A1%B0%EC%84%A0%EC%96%B4_%EC%8B%A0_%EC%9E%90%EB%B2%95.pdf (Scan)

2. 조선어 문법 (Book, attached)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C%A1%B0%EC%84%A0%EC%96%B4_%EB%AC%8B%EC%9E%90%EB%B2%95\(1949\).pdf](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C%A1%B0%EC%84%A0%EC%96%B4_%EB%AC%8B%EC%9E%90%EB%B2%95(1949).pdf) (Scan)

3. 조선어 연구 (Journal; the table of contents is attached)

→https://books.google.co.jp/books?id=g_IUAQAAQAAJ&q=%EC%A1%B0%EC%84%A0%EC%96%B4%EC%97%B0%EA%AC&dq=%EC%A1%B0%EC%84%A0%EC%96%B4%EC%97%EA%AC&hl=ja&sa=X&ved=0ahUKEwiruZSXqJPWAhWBrpQKHYlwDT8Q6AEIJzAA (Only Bibliography)

→<http://www.worldcat.org/oclc/50309768> (Only Bibliography)

→theses attached (written by association; Public domain)

·(1) 새 자모에 대하여

·(2) 신 철자법에 의하여 구별되는 동음 이의어

·(3)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1)~(4)

4. 최호철 「북한「조선말규범집」의 2010년 개정과 그 의미」

→http://www.sokoll.or.kr/bbs/board.php?bo_table=journal_1&wr_id=4&page=3

5. and others.

Bibliography 1

총 론

1. 조선어 철자법은 현대 조선 인민의 언어 의식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형태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조선어 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 어음학적 원리에 의거 하되 조선 고유의 발음상의 제규칙을 존중한다.
3. 문장의 단어는 원칙적으로 각각 띄여 쓴다.
4. 표준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
5. 모든 문서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획서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각 론

제1장 자모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제1항 조선어 자모의 수는 현대의 필요와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종래의 스물 네 자를 마흔 두 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ㅋ ㅌ ㅍ ㅎ
ㅏ ㅓ ㅗ ㅕ ㅜ ㅘ ㅡ ㅣ ㅐ ㅔ ㅖ ㅚ ㅟ ㅞ

(단, 문자 개혁 이전에 있어서는 차, 새, 귀, 궈와 모음 뿐인 곳에 ㅇ자를 가반하여 표기 한다).

제2절 자모의 이름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윽(그) ㄴ 니은(느) ㄷ 디귿(드) ㄹ 리을(르) ㅁ 미음(므) ㅂ 비읍(브) ㅅ 시
웃(스) ㅇ 이응(으) ㅈ 지읒(즈) ㅊ 치읒(츠) ㅋ 키읔(크) ㅌ 티읕(트) ㅍ 퍼읕(프)
ㅎ 히읗(흐) ㄲ 끼읔(끄) ㄸ 띠읕(뜨) ㅃ 빠ӛ(쁘) ㅆ 씨읕(쓰) ㅉ 씽(쯔) ㅋ
리을(르) ㅌ 티을(트) ㅅ 시읕(쓰) ㅍ 히읗(흐) ㅂ 누우(반모음 ㅓ) ㅣ ㅚ(반모음
ㅓ)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ㅕ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ㅐ 얘 ㅔ 예 ㅚ 외
귀위 ㅚ의

단, "히 응"은 [히으], "리 율"은 [리으], "시 웃"은 [리을], "히 응"은 [히으], "누 우"은 [우 읍]
이라 발음한다.

제2장 어음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3항 한 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다.)

갑	을
거꾸로	것구로
부썩	붓석
소쩍새	솟적새
토끼	돛기
해쓱하다	햇슥하다
깨끗하다	깻긋하다
어깨	엇개
어떠하다	엇더하다
어찌	엇지
여쭈다	엿주다
오빠	옵바
으뜸	웃뜸
이따금	잇다금

제2절 설측음 "ㄹ"

제4항 한 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설측음을 종래에는 "ㄹ, ㄹ"로 적던 것을 "ㄹ"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다.)

갑	을
거례	걸례
다래다	달래다
더렁이	덜렁이
벼례	벌례
시룩시룩	실룩실룩
진다래	진달래
아락다락	알락달락
어른	얼른

제3절 구개음화

제5항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지 "이, 이, ㅎ"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하여 "ㅈ, ㅊ"에 가깝게 한다. 례: (갑과 같이 표기하고 을에 가깝게 발음한다.)

갑	을
굳이	구지
해돋이	해도지
땀받이	땀바지
같이	가치
발이	바치
끌이	끄치

갑	을
핥이다	할치다
걷히다	거친다
닫히다	다친다
묻히다	무친다

제4절 말음 표기

제6행 ㅂ, ㅍ, ㅂ; ㄷ, ㅌ, ㅅ, ㅆ, ㅈ, ㅊ; ㄱ, ㅋ, ㄲ, ㄳ 등의 음이 말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연발되지 않는 다른 음이 을 적에 각각 (ㅂ), (ㄷ), (ㄱ)로 발음되더라도 그 원형에 따라 받침ㅁ을 밝히여 적는다. ㄷ로 발음되더라도 원형 밝힐 수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1) ㅂ로 발음되면서도 ㅂ, ㅍ, ㅂ; ㅂ으로 적는 예:

밥	밥상
무릎	무릎아래
아름닭다	쉽다
값	값없다

2) ㄷ로 발음되면서도 ㄷ, ㅌ, ㅅ, ㅆ, ㅈ, ㅊ으로 적는 예:

꼰	
팔	팔알
옷	옷안
겄다	
있다	
젖	젖어미
꽃	꽃아래

3) ㄱ로 발음되면서도 ㄱ, ㅋ, ㄲ, ㄳ으로 적는 예:

속	속옷
부엌	부엌안
밖	
넋	넋없다

4) ㄷ로 발음되면서도 ㅅ으로 적는 예:

덧저고리	빗나가다
짓밟다	핫웃
엇먹다	엇셈
웃어른	쳤
뭇	무릇
헛	얼핏
그릇	자칫하면

사뭇 잘못하다

제5절 반모음 "ㅣ"

제7항 용언의 어간의 말음인 "ㅣ"음 중에 다음에 모음 토가 올 적에 이와 합하여 한 음절을 이루는 것은 반모음이므로 이를 ㅣ 자로 적는다.

1) 반모음 ㅣ로 적어야 하는례:

지다	지고	지여	지였다
치다	치고	치여	치였다
버리다	버리고	버리여	버리였다
스미다	스미고	스미여	스미였다
하비다	하비고	하비여	하비였다
오시다	오시고	오시여	오시였다
가지다	가지고	가지여	가지였다
고친다	고친고	고친여	고친였다
밝히다	밝히고	밝히여	밝히였다

2) 온모음 "ㅣ"로 적어야 하는례:

기다	기고	기여	기였다
아니다	아니고	아니여	아니였다
미다	미고	미여	미였다
시다	시고	시여	시였다
피다	피고	피여	피였다
빼다	빼고	빼여	빼였다
띠다	띠고	띠여	띠였다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1절 체언의 어간과 토

제8항 체언의 어간과 토가 어우를 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벼리니다.)

갑			을		
집이	집을	집에	지비	지블	집베
짚이	짚을	짚에	지피	지풀	지페
값이	값을	값에	갑시	갑슬	갑세
맡이	맡을	맡에	마지	마들	마데
팔이	팔을	팔에	파치	파틀	파테
옷이	옷을	옷에	오시	오슬	오세
낫이	낫을	낫에	나지	나즐	나제
꽃이	꽃을	꽃에	꼬치	꼬출	꼬체
떡이	떡을	떡에	떡끼	떡끌	떡께

갑			을		
부엌 이	부엌 을	부엌 예	부어 키	부어 클	부어 케
밖이	밖을	밖에	바끼	바끌	바께
삯이	삯을	삯에	삭시	삭슬	삭세
밤이	밤을	밤에	바미	바믈	바메
손이	손을	손에	소니	소늘	소네
콩이	콩을	콩에	—	—	—
팔이	팔을	팔에	파리	파를	파레

제2절 용언의 어간과 토

제9항 용언의 어간과 토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좁다	좁고	좁아	좁으니
짚다	짚고	짚어	짚으니
끓다	끓고	끓어	끓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싣다	싣고	싣어	싣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좇다	좇고	좇아	좇으니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넣다	넣고	넣어	넣니
징다	징고	징어	징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울니

[부기] 다음과 같은 말들은 오늘날의 언어 의식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가黠 적는다. 예:

1) 어간과 토를 구별하여 적을 것

넘어가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긁어지다
빌어먹다	흘어지다	털어 버리다	떨어지다	쓸어 버리다
엎어지다	일어나다			

2) 어간과 토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 할 것

나타나다	너머지다	느러지다	도라가다	빠개지다
비러먹다	부려지다	불거지다	자빠지다	쓰러지다

제3절 동사의 피동형과 사역형

제10항 동사의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피동이나 사역으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뜻지 아니 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예: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다.)

갑	을
맡기다	맡기다
옮기다	옮기다
웃기다	우끼다
솟구다	소꾸다
뚫리다	뚫리다
울리다	울리다
닫히다	다친다
박히다	바키다
잡히다	자피다
앉히다	안친다
일으키다	이르키다
돌이키다	도리키다
돋우다	도두다
낚이다	낙기다
박이다	박기다
핥이다	핥친다
쌓이다	싸히다

제4절 소위 변격 용언의 처리

제11항 종래의 소위 변격 용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종래의 "ㄹ 변격 용언"은 ㄹ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ㄹ 자모는 설 단 반전음 "r"로서 조선어에 있어 ㄹ과 비슷하게 발음되나 "ㄴ, ㅂ, ㅅ, 오" 앞에서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죽는 [ㄹ]"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예:

갈다	갈다	갈고	갈지	갈면	갈니	갈ㅂ니다	갈시니	갈오
놀다	놀다	놀고	놀지	놀면	놀니	놀ㅂ니다	놀시니	놀오
길다	길다	길고	길지	길면	길니	길ㅂ니다	길시니	길오
불다	불다	불고	불지	불면	불니	불ㅂ니다	불시니	불오

(2) 종래의 "ㅅ 변격 용언"은 ㅌ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ㅌ 자모는 무성 파열음 [?]로서 조선어에 있어 다음에 오는 자음을 되게 내게 하며(ㄱ, ㄷ, ㅅ, ㅈ 등 을 ㄲ, ㄸ, ㅆ, ㅉ로) "ㄴ, ㄹ, ㅁ, ㅂ, ㅅ" 앞에서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발음되지 않는다. (단, 는, 네, 느냐? 뉘? 나? 위에서는 (?)와 같이 발음된다.) 예:

금다	금다	긁고	긁소	긁지	긁니	긁ㄹ	긁면	긁ㅂ니다
	긁어	긁오	긁신니	긁는	긁네	긁느냐?	긁뉘?	긁나?
낳다	낳다	낳고	낳소	낳지	낳니	낳ㄹ	낳면	낳ㅂ니다
	낳어	낳오	낳신니	낳는	낳네	낳느냐?	낳뉘?	낳나?
징다	징다	징고	징소	징지	징니	징ㄹ	징면	징ㅂ니다
	징어	징오	징신니	징는	징네	징느냐?	징뉘?	징나?

잉다	잉다	잉고	잉소	잉지	잉니	잉근	잉면	잉ㅂ니다
잉어	잉오	잉시니	잉는	잉네	잉느냐?	잉늬?	잉나?	

(3) 종래의 "ㅎ 변격 용언"은 어떠한 토 위에서나 ㅎ 받침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예:

하얗다	하얗다	하얗고	하얗지	하얗니	하얗ㄴ	하얗면
어떻다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니	어떻ㄴ	어떻면
[참고] 좋다	좋다	좋고	좋지	좋니	좋ㄴ	좋면

(4) 종래의 "ㄷ 변격 용언"은 ㅅ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ㅅ자모는 유성 설단 마찰음 [ʒ]로서 조선어에 있어 다른 자음 앞에서 [ㅅ]과 비슷하게, 모음과 모음, 모음과 "리" 사이에서는 [ㄹ]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예:

겅다	겅고	겅어	겅으니	겅리다
싣다	싣고	싣어	싣으니	싣리다
듯다	듯고	듯어	듯으니	듯리다
붓다	붓고	붓어	붓으니	붓리다

(5) 종래의 "ㅂ 변격 용언"은 ㅂ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ㅂ자모는 량순 마찰음 [W]로서 조선어에 있어 동위치의 파arel음 [P]와 같이 발음되고 "ㄴ, ㄹ, ㅁ, ㅂ, ㅅ"나 모음을 두음으로 하는 토 위에서는 [W]로 발음된다. (단, "는, 네, 느냐? 뉏? 나? 느" 위에서는 [P]와 같이 발음된다.) 예:

糗다	糗다	糗고	糗니	糗근	糗면	糗ㅂ니다	糗신니	—
糗아	糗오	糗는	糗네	糗소	糗느냐?	糗늬?	糗나?	
늙다	늙다	늙고	늙니	늙근	늙면	늙ㅂ니다	늙신니	늙소서
늙아	늙오	늙는	늙네	늙소	늙느냐?	늙늬?	늙나?	
돕다	돕다	돕고	돕니	돕근	돕면	돕ㅂ니다	돕신니	돕소서
돕아	돕오	돕는	돕네	돕소	돕느냐?	돕늬?	돕나?	

(6) 종래의 "여 변격 용언"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나 제5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격"은 아니다. 예:

하다	하여	하였으니	하였다
욕하다	욕하여	욕하였으니	욕하였다
일하다	일하여	일하였으니	일하였다
착하다	착하여	착하였으니	착하였다

(7) 종래의 "려 변격 용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이를다	이를어	이를었다
-----	-----	------

[련결모음 "으"]

ㅅ불규칙(잉니 등) 및 ㅎ불규칙(좋면, 하얗면 등)에서 접속모음"-으"을 적지 않는것은 /이:너/, /조:면/, /하야:면/과 같이 "으"를 끼우지 말고 발음하는것을 전제 한것이다.

[접속형]

ㅎ불규칙의 -아/어 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여기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나 "조선어 문법"에서는 "그래서, 그럼"과 같이 쓰인바 있다.

누를다 누를어 누를었다

푸를다 푸를어 푸를었다

[부기] 어간의 말음 "ㄹ"을 "ㄴ, ㅁ, ㅅ, ㅈ" 이외의 자음 위에서도 아니 내는 때가 있으나(이르다, 이르고) "ㄹ"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8) 종래의 "르"변격 용언"은 "—" 소리의 발음 규칙을 현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이 때 종래 "ㄹㄹ"(갈라 갈랐다……) 대신에 ㄹ 자모를 사용한다. ㄹ 자모는 설측음 [l]이다. 예:

가르다	가르다	가르니	가르지
가rix	가rix다	가rix니	가rix지
거르다	거르다	거르니	거르지
거rix	거rix다	거rix니	거rix지
누르다	누르다	누르니	누르지
누rix	누rix다	누rix니	누rix지

[부기1] "—" 소리 발음 규칙 = "—" 소리는 그 발음시의 공명강의 형상이 혀는 자연한 위치에 있고, 입은 거의 닫히ㄴ 모양으로 되는 까닭에 어떠한 모음을 발음할 때든지 이 공명강의 형상을 그 시발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므로, "—" 소리 다음에 어떤 다른 모음이 오든지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전에는 따로 나지 않는다.

[부기2] 어간의 끝 음절 [트]를 [르]로 내기도 하나(가르다, 거르다, 누르다, 오르다 …) [트]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르]로 내는 것도 허용한다.

단, 어간의 끝소리 "ㄴ, ㅁ"의 아래에서 토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마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신다	신고	신지	신따	신꼬	신찌
안다	안고	안지	안따	안꼬	안찌
검다	검고	검지	검따	검꼬	검찌
넘다	넘고	넘지	넘따	넘꼬	넘찌

제5절 받침ㅁ

제12항 조선어에 사용되는 받침ㅁ은 다음과 같다.

ㅂ ㅍ ㅎ ㅁ ㅌ ㄷ ㅌ ㅅ ㅈ ㅊ ㅋ ㄲ ㅆ ㅊ ㅎ ㅌ ㅋ ㅌ ㅍ ㅎ ㅁ ㅌ ㅍ ㅎ
ㅎ ㅌ ㅍ ㅎ ㅁ ㅎ ㅌ ㅍ ㅎ ㅁ ㅎ ㅌ ㅍ ㅎ ㅁ ㅎ ㅌ ㅍ ㅎ

이 예:

ㅂ 받침ㅁ	밥	집	탑
	굽다	굽다	좁다
ㅍ 받침ㅁ	무릎	숲	짚
	헝겊	옆	잎
	앞	갚다	깊다

	높다	덮다	드높다
	싫다	짚다	엎다
부 받침 모	糗다	굵다	깁다
	늪다	덥다	돛다
	맺다	밉다	쉽다
	춥다	꽃 닦다	아름 닦다
파 받침 모	값	가엾다	맥 없다
	부질 없다	상 없다	시름 없다
	실 없다	없다	열 없다
ㄷ 받침 모	꼰	낱	맡
	걷다	곧다	굳다
	닫다	돇다	묻다
	묻다	밀다	밭다
	뻗다	뜯다	뻗다
	쏟다	얻다	
ㅌ 받침 모	곁	곁	끌
	날	머리 말	물
	밀	발	별
	살	술	술
	팔	흘	갈다
	맡다	발다	뱉다
	부를다	불다	얕다
	열다	짙다	흘다
ㅅ 받침 모	갓	낫	웃
	벗다	솟다	씻다
스 받침 모	겼다	겼다	깃다
	늪다	다닳다	닳다
	둣다	풋다	붓다
	싣다	깨닳다	일Keith다
ㅆ 받침 모	-겠다	-았다	-었다
	-였다	있다	
ㅈ 받침 모	낫	빛	젖
	갖다	꽃다	꾸짖다
	궂다	낫다	늦다
	맞다		맺다
	벼룩다	부르짖다	빛다
	애꿎다	잇다	잦다

	잦다	잦다	젖다
	젖다	찢다	찾다
ㅊ 받침 모	잦	꽃	낯
	닻	덫	돛
	몇	빛	숯
	옻	쫓다	쫓다
ㅋ 받침 모	국	녹	떡
	막다	먹다	썩다
ㅋ 받침 모	녁	부엌	
ㄲ 받침 모	밖	깎다	꺾다
	겪다	낚다	닦다
	닦다	묶다	볶다
	섞다	솎다	엮다
ㄳ 받침 모	넋	몫	삯
ㅎ 받침 모	깊다랗다	낳다	낳다
	놓다	닿다	둥글영다
	땋다	빻다	쌓다
	좋다	찡다	커다랗다
ㅎ 받침 모	금다	낳다	봉다
	잤다	정다	좋다
	징다	영 보다	잉다
ㄹ 받침 모	갈다	걸다	굴다
	길다	날다	놀다
	달다	돌다	둘다
	멀다	물다	물다
	빌다	불다	알다
ㄹ 받침 모	길	돌	물
ㄺ 받침 모	여덟		
	넓다	밟다	밟다
ㄻ 받침 모	읊다		
ㄻ 받침 모	기슭	닭	흙
	맑다	얽다	얽다
ㄽ 받침 모	핥다	훑다	훑다
ㄽ 받침 모	긁	돛	옻
ㄽ 받침 모	끓다	끓다	끓다
	닳다	뚫다	싫다
	옳다	앓다	옳다

		잃다	
ㄹ 받침 모	긁다	닳다	잃다
	(ㄹ 받침 모 은 방언임)		
ㄹ 받침 모	긁다	긁다	닭다
	삶다	옳다	짊다
ㄴ 받침 모	논	눈	잔
	신다	안다	
ㄴ 받침 모	앉다	얹다	끼얹다
ㄴㅎ 받침 모	팬찮다	귀찮다	쫓다
	끓다	하찮다	
	많다	언짢다	
ㅁ 받침 모	꿈	땀	솜
	감다	검다	심다
ㅇ 받침 모	둥	콩	땅
이 받침 모	굵 (구멍의 방언)	낚 (나무의 방언)	

비슷한 받침 모의 비교표

日 고 누 밥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업-	업고	[업고]	업어	[어버]
엎-	엎고	[업고]	엎어	[어펴]
믿 엎-	엮고	[업고]	엮어	[어워]
없-	없고	[업고]	없어	[업서]

日 누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굽-	굽고	[굽고]	굽아	[고바]
糗-	糗고	[굽고]	糗아	[고와]
굽-	굽고	[굽고]	굽어	[구버]
糗-	糗고	[굽고]	糗어	[구워]

ㄷ ㅌ ㅅ ㅈ ㅊ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낱-	낱파	[낱파]	낱에	[나데]
낱-	낱파	[낱파]	낱에	[나데]
낫-	낫파	[낱파]	낫에	[나세]
낫-	낫파	[낱파]	낫에	[나제]
낫-	낫파	[낱파]	낫에	[나체]

ㅎ ㅎ ㅅ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낳-	낳고	[나꼬]	낳아	[나아]
낳-	낳고	[나코]	낳아	[나아]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낫-	낫고	[낫고]	낫아	[나사]
나-	나고	[나고]	나아	[나아]

ㄷ ㅌ ㅈ ㅊ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묻-	묻고	[묻고]	묻어	[무더]	묻으니	[무드니]
뭉-	뭉고	[뭉고]	뭉어	[무러]	뭉으니	[무르니]
물-	물고	[물고]	물어	[무려]	물니	[무니]

ㄹ ㄺ ㄻ ㄻ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물-	물'가	[물까]	물'소	[물쏘]
물-	물근까?	[물까]	물소	[무소]
불-	불'가	[불까]	불나니	[불나니]
불-	불근까?	[불까]	불나니	[부나니]
가-	가니	[가니]	가고	[가고]
갈-	갈니	[가니]	갈고	[갈고]

제6절 원형 표시

제13항 용언의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 "웃"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과, "ㅁ, 음, 엄, 암"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물론하고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예: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겼음겼이 쿠이 길이 높이 다틈이 덤이 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리ㅁ살이 손잡이 쇠붙이 츄이 풀이 해돋이
땀받이

(2)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가깎이 계으틔 쿠이 깊이 길이 다틈이 많이 새루이 실없이
적이 좋이 빠틔

(3) "웃"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검웃검웃 짝웃짝웃 옥웃옥웃

(4) "ㅁ, 음, 엄, 암"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겼음 둑ㅁ 받치ㅁ 줄음 죽음 품갚음 열음 엮음 울음
묻엄 죽엄
막암

제14항 용언의 어근에 "이, 웃, ㅁ, 음, 엄, 암" 이외의 음이 붙어서 타사로 전성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예:

(1) 명사로 된 것

귀며거리 마개 마종 불경이 비령벵이 코뚜래 까마귀 뜨더귀

Bibliography 2

에 있다. 이 例外順序는 特히 諺典 本에서 語彙를 整理할 때 遵守된다.

字母의 碼序와 그 名稱은 다음과 같다.

文字	名稱	文字	名稱	文字	名稱
ㄱ	기우 또는 그	ㅋ	끼움	꼬	여
ㄴ	나운 ” 는 ”	ㅌ	떠운 ” 뜰 ”	느	오
ㄷ	더운 ” 두 ”	ㅍ	匪음 ” 희 ”	느	요
ㄹ	리운 ” 르 ”	ㅆ	찌운 ” 죄 ”	쓰	우
ㅁ	미음 ” 모 ”	ㅉ	찌운 ” 죄 ”	즈	유
ㅂ	비음 ” 브 ”	ㄹ	리운 ” 르 ”	ㅡ	으
ㅅ	시옷 ” 스 ”	ㅌ	티읕 ” 티 ”	ㅓ	이
ㅇ	이응 ” 으 ”	ㅅ	시옹 ” 스 ”	ㅏ	애
ㅈ	지읒 ” 즈 ”	ㅎ	히읗 ” 흐 ”	ㅗ	예
ㅊ	치읓 ” 츠 ”	ㅎ	히읗 ” 흐 ”	ㅐ	예
ㅋ	끼을 ” 쿠 ”	ㅌ	티읕 ” 티 ”	ㅔ	예
ㅌ	티을 ” 티 ”	ㅏ	아	ㅓ	외
ㅍ	피을 ” 프 ”	ㅑ	야	ㅗ	위
ㅎ	희을 ” 흐 ”	ㅓ	이	ㅓ	의

但, [히읗]는 [히으], [티읕]는 [티으], [히읓]은 [히

을], [히읓]는 [히으], [누읗]은 [누을]이라 読讀한다.

第 1 篇 語 音 論

[附記 1] 從來 부개 以上的 文字가 合成된 것으로
須做과만 ㄎ, ㄔ, 𩙗, 从, ㄅ, ㄆ, ㄈ, ㄉ, ㄊ, ㄋ, ㄌ,
ㄕ, ㄕ, ㄕ는 韻體와 表記 處理上 반드시 한 개의 文字로 보아야
한다.

[附記 2] 從來의 ㄤ, ㄮ, ㄰, ㄱ等은 ㄩ, ㄮ, ㄰, ㄱ等
으로 表記되므로 (꽝=ㄱ ㄩ ㅏ ㅇ, ㄮ=ㄩ ㅓ, 원=ㄩ ㄴ, 웬=ㄩ ㅓ ㄴ) 두 개의 文字가 合成된 것이며, 따라서 字母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다. 그렇나 文字改革 (풀어서 가로쓰기)
以前에 있어서는 從來와 같이 ㄤ, ㄮ, ㄰, ㄱ等의 文字를
使用하기로 한다 (꽝, ㄮ, 원, 웬). 다만 用言의 語幹
과 ト가 結合된 “ㄤ”와 “㄰”는 文字改革 以後에도 語幹의
形態를 固定시키기 為하여 “ㄤ”, “㄰”로 적어야 한다.

例: 오다	와서	왔다
싸우다	싸워서	싸웠다
배우다	배워서	배웠다

[附記 3] 文字 改革 以前에 있어서는 母音으로 써 晉
節이 始作되는 경우, 그 母音의 앞에 ○票를 붙인다.

例: 웃	집안
------	----

[附記 4] 새 ㄉ ㄴ 文字 (ㄉ, ㄉ, ㄈ, ㄈ, ㄩ, ㄩ)
의 本質, 用法에 關하여는 語音論과 形態論의 곳곳에 說明
되어 있다.

第3章 語音의 分類

第1節 母 音

朝鮮語 單母音은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의 열 개이며, 혀의 位置, 입을 열는 程度, 입술의 形狀에 따라 이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혀의 位 置 입을 열는 程 度	前 中 後		
	近 閉	中	後
近 閉	ㅣ (ㅟ)	-	(ㅜ)
半 閉	ㅔ (ㅚ)	-	(ㅗ)
半 開	-	ㅐ	ㅓ
全 開	-	ㅏ	-

() 안의 母音은 圓唇母音이다.

[附記 1]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는 각기 [半母音+母音] 即 [1 + ㅏ], [1 + ㅓ], [1 + ㅗ], [1 + ㅜ], [1 + ㅡ], [1 + ㅣ], [1 + ㅐ], [1 + ㅔ], [1 + ㅚ], [1 + ㅟ] 이므로 單母音도 아니고, 二重母音도 아니다.

[附記 2] 二重母音 [ㅓ]에 關하에는 41 頁 시 參照。

第3節 子音

調音의 樣式와 位置에 根據 朝鮮語 子音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位置 樣式	兩脣音	舌端音	硬口 蓋音	軟口蓋音	喉頭音
破裂音	ㄱ ㅋ ㅌ	ㆁ ㆁ ㆁ		ㄱ ㅋ ㅌ	ㆁ
摩擦音	ㆁ	ㆁ ㆁ ㆁ	ㆁ	(ㆁ)	ㆁ
破擦音		ㆁ ㆁ ㆁ			
鼻音	ㅁ	ㄴ		ㅇ	
舌側音		ㅌ			
顎音		ㄹ			
半顎音		ㄹ			

第1篇 語音論

文字	性質	音價		位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默音	o	3.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자음 사이 1. 母音과 母音사이 2. 母音과 有聲子音 사이 3. 有聲子音과 有聲子音 사이	징네 징어라 궁니 궁랴? 잃느? (부)
우	兩脣 (軟口蓋) 摩擦音 半母音 [w]	[w]	[w]	1. 母音과 母音사이 2. 母音과 有聲子音 (ㄹ, ㅁ, ㄴ) 사이 3.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시에限함)	동아라 충아이 충더미 충니; 충나 흐시니
	內破의 [ㅂ]		[p]	1. 母音과 無聲子音 (시를除外함) 사이	쁘다 쁘소
	有聲的 [ㅂ]		[b]	2. 母音과 有聲子音 (는, 네, 뉴, 나? 느냐?) 사이	쁘네 쁘느? 깅느나?
	默音		o	母音과 母音사이	새둥이 굼이
人	舌端 摩擦音 [s]	[ㅅ]	[s]	1. 語頭 2. 母音과 母音사이	사람 가수

第一篇 語音論

文字 性質	音 漢		位 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ㅂ] 內破의 [ㄷ]	[ㅂ]	[b]	母音과 有聲子音 (ㄹ) 사이	걸리다 둘리다
	[ㄷ]	[t]	母音과 無聲子音 사이	겁다 깨닳다
[ㅌ] 舌端音 [t]	[ㅌ]	[t]	1. 母音과 母音 ("오"를 除外 함) 사이	놀아라 털어라
	[ㅌ]	[t]	1. 母音과 無聲 子音 (ㅅ, ㅂ 를 除外함) 사이 2. 母音과 有聲 子音 (ㄹ) 사이	걸다 달고 멀지않다 놀리다 멀리
	默 音	0	1. 母音과 母音(오 에 限함) 사이 2. 母音과 子音 (ㄴ, ㅁ, ㅅ 에 限함) 사이	갈오 놀오 길나무 달비나다 불신나다
1 硬口蓋 擦舌 半母音 [ㅈ]	[ㅈ]	[j]	어디서나	다녀였다 오지다 치여라 가지다
	[ㅎ]	[h]	1. 語頭 2. 無聲子音과 母音 사이	해리 자하
古 喉頭音 擦音 [ㅂ]	[ㄱ]	[k]		

第1篇 語音論

文字	性質	音價		位置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E]	[I]		2. 有聲子音 [巳] 를 [除外합] 파 母音 사이 3. 無聲子音 파 母音 사이 1. 母音파 有聲 子音 사이 2. 母音파 無聲 子音 사이 3. 語末 4. [巳] 뒤	해일 경로 학리 물론 결파 질 달리다 리화 탐 로리
	默音	o		1. 語頭 ([I]), [I] 앞 떠로는 2. 母音파 [I], [I] 사이	비둘 대벌
E	舌側音 [I]	[E]	[I]	어어서나	헤날 (外 舌) 쫓여만 가팠다 흐렸다 아팠다 땅 빠퇴 오퇴다

第4章 字母와 音韻

書 朝鮮文字表音符號	나타나는 位置 語頭 語中 語末	次序	例
内破의 [ㄱ]	[k]	○ ○ ○ ○	ㄱ ㅋ ㄲ ㅋㅋ 역다 속 뒤다 밤 부엌간 복
	[k']	○ ○	ㅋㅋ 기 능코
	[ㅇ]	○ (o) (o)	ㆁ (ㆁ, 江, 明, 从, 从)
	[w]	○ (o) (o)	ㆁ (ㆁ, ㆁ) 두아라 쿠다 짜워라
[ㅅ]	[s]	○ ○	ㅅ 사람, 가수

第1篇 語音論

音	나라나는 位置			文字	例
朝鮮文字 表音符號	語頭	語中	語末		
[n]	○			人	칠
[n]		○		人	오서다
[s]		○		人	풀, 새
	○			从	씨름
		○		从	솜씨
[r]	○	○		ㄹ	로마, 소리
		○		△	뭉어라
		○		ㄴ	기념
		○		ㄹ	늘아라
[l]	○			ㅌ	례날
		○		ㅌ	기념다
		○		ㅌ	늘리다, 블리
		○		ㄴ	걸다
		○		△	걸리다
		○		ㄴ	온난
		○		ㄹ	결과

第4章 与韓外 音質

音	나라나는 位置			文 字	例
切符文字	音符號	語頭	語中	假名	
		○	○	○	월
[t]	[t]	○	○	ち	가지다
		(○)	(○)	(チ)	
				(ト, ツ)	
[t̚]	[t̚]	○	○	ヒ	히비
		(○)	(○)	ヒ	높다
		(チ)	(チ)	(チ, ツ)	
				(ト, ツ)	
[tʂ]	[tʂ]	○		次	자리
[tʂʰ]	[tʂʰ]	○	○	次	발전
		○	○	次	짜다
				次	이쪽
[tʂ']	[tʂ']	○	○	三	같이
		○	○	大	치마
				大	까치

第5章 音節

[附記] 形態論에 있어 “부, 흥, 턱, 끄”의 받침이 有聲
音節이 開音節로 看做됨에 關하여는 109 폐지 參照.

第2節 二重母音

한 音節 안에 있는 두 개의 母音을 二重母音이라고 한다.

朝鮮語에 있어서는 二重母音으로는 “나” 하나 밖에는 없다.

그렇나, 이 꿈도 점차로 單母音化하는 趨向을 보이고 있다.

“월”, “약” 等은 [부+나+ㄹ] [1+ㅏ+ㄱ] 으로 分析되어
[半母音+母音] 이므로 二重母音으로는 读기 어렵다. 이곳에 韓語
앞에 있는 半母音은 子音의 性質을 가지느니.

第3節 半母音 “し”

半母音 1는 그 뒤에 子音이 올 때 이것과 함께 한 音節을
이룬다. 이제 “은母音 1” 와 “半母音 1” 를 比較하여 보면,

가지 (먹는 가지 — 名詞) 와

가지 (체운 가지다 — 動詞)

에 있어 子音 토 “다” 가 오면,

이것은 가지다 (체운 音節)

그는 체운 가지다 (체운 音節)

로 되며, “가지나” “가지다” 는 다 같이 체 音節이나, 母音 토 “여

서”, “였다”가 오면,

이 것은 가지여서 (비 音節)

이 것은 가지였다 ()

에 對하여,

그는 책을 가지여서 [가져서] (책 音節)

그는 책을 가지였다 [가졌다] ()

로 되며, 音節 추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것으로써 “은母音 1”와 “半母音 1”가 서로 다른 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名詞의 [가지]와 動詞의 [가지-]를 区別할 수 있으며, 또한 名詞의 “가지”는 언제나 “가지”로, 動詞의 “가지-”는 언제나 “가지-”로 表記함으로써 그 形態를 固定시킬 수 있다.

“半母音 1”는 原則的으로 用言語幹의 末音에만 나타나며, 例如 “은母音 1”로 表記되었을 用言語言幹 末音은 그 絶對 多數가 “半母音 1”로 적어야 할 것이다.

- 1) 語幹 末音을 “半母音 1”로 적어야 할例:

친다 (打)	치고	친여	친였다
--------	----	----	-----

지다 (負)	지고	지여	지였다
--------	----	----	-----

오시다 (來의) (尊敬)	오시고	오시여	오시었다
---------------	-----	-----	------

먹이다 (便食)	먹이고	먹이여	먹이웠다
----------	-----	-----	------

2) 語幹 末音을 “은母音 1”로 적어야 할例:

아니다 (否)	아니고	아니여	아니었다
---------	-----	-----	------

시다 (酸味가) (있다)	시고	시여	시였다
----------------	----	----	-----

第6章 語音의 高低와 長短

미다 (窓戶紙를 찢다) 미고 미여 미였다
기다 (개미가 기어가다) 기고 기여 기였다
빼다 (풀이 빼다) 빼고 빼여 빼였다

3) “半母音 1”로 語幹이 끝난 用言으로 부터 轉成된

名詞의 例 :

발치다 → 발치ㅁ
알리다 → 알리ㅁ
울리다 → 울리ㅁ
드리다 → 드리ㅁ
윤리다 → 윤리ㅁ
느리다 → 느리ㅁ
듬리다 → 드름리ㅁ

第6章 語音의 高低와 長短

한 言語의 語의 音節 사이에 强弱, 高低의 差가 있고, 그 関係가 適應的 事實로서 一定하여 있는 現象을 악센트라고 하며, 强弱 関係의 一定하여 있는 것을 强弱 악센트, 高低 関係의 一定하여 있는 것을 高低 악센트라고 한다.

朝鮮語의 악센트는 高低 악센트로 볼 수 있으며, 音節 사이의 高低 関係가 尤甚하는 않으나, 高低의 차이에 따라 語의 意味도 달라지는 例가 있다.

어찌

엇지

따로서 둘 개의 形態部 사이에서 나는 韻소리는 音節別로 따로 적는다.

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리느니다.）

甲

乙

국가 (國家)

구가

벗고 (脫)

버고

압박 (壓迫)

아박

꺾으니 (折)

꺾고니

2) 한 形態部 안의 두 母音 사이에서 나는 舌側音은 “乙”로 적는다.

例：（甲을 取하고 乙, 丙을 버리느니다.）

甲

乙

丙

아 담 달 탕

알 닉 달 닉

알 낙 달 낙

다 망 달 망

달 닉 달 닉

달 낙 달 낙

거 래

걸 래

걸 래

시 툭 시 툭

실 륙 신 륙

실 놋 실 놋

어 름

얼 름

얼 는

파 퇴

빨 리

빨 니

오 뒹 다

울 뒹 다

울 났 다

가 뒹 다

갈 뒹 다

갈 났 다

거 뒹 다

걸 뒹 다

걸 났 다

第6章 末音과 그 표記

누웠다	풀었다	흘렸다
흐렸다	풀었다	흘렸다
가렸다	질렀다	질렸다

따라서 두 개의 形態部 사이에서 나는 舌側音은 音節別로 따로 따로 “ㄹ”, “ㄹ”로 적는다.

例：（甲을 取하고 乙丙을 버리다）

甲	乙	丙
홀로 (獨)	호로	흘노
길로 (道)	기로	걸노
풀로 (石)	도로	풀노

第6章 末音과 그 표記

末音의 表記에 있어 練字法 上 注意할 點은 다음과 같다.

語末 또는 連發되지 않는 音의 앞에서 內破의 [ㅂ] [ㄷ], [ㄱ], 舌側音의 [ㅌ]로 發音되는 語도, 그 語의 形態部를 固定시키기 為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ㅂ]로 發音되면서도 “ㅂ, ㅍ, ㅃ, ㅂ”로 적는 例：

ㅂ — 밥 (밥에, 밥을, 밥상)

업다 [아이를 업다.] (업어, 업으면)

ㅍ — 옆 (옆에, 옆을, 옆집)

엎다 [물 그릇을 엎다.] (엎어, 엎으면)

ㅃ — 빙 (빙에, 빙을, 빙없다)

없다 [돈이 없다.] (없어, 없으면)

2) ㅂ - 밀었다 [사람이 밀었어.] (밀었어, 밀었으면)

2) ㄷ [ㄷ]로 發音되면서도 “ㄷ, ㅌ, ㅅ, ㅆ, ㅈ, ㅊ, ㅋ, ㅌ”

로 적는例 :

ㄷ - 날 (穀) (날에, 날을, 날알)

길다 (걸어, 길으면)

ㅌ - 날 (個) (낱에, 날을, 날말)

같다 (걸아, 같으면)

ㅅ - 낫 (鎌) (낫에, 낫을, 낫질)

10 ㅂ - 벗다 (벗어, 벗으면)

ㅆ - 있다 (있어, 있으면)

ㅈ - 겄다 (겁어, 겄으면)

ㅊ - 낫 (畫) (낫에, 낫을, 낫잠)

늦다 (늦아, 늦으면)

ㅋ - 낫 (面) (낫에, 낫을, 낫없다)

쫓다 (쫓아, 쫓으면)

3) ㄱ [ㄱ]로 發音되면서도 ㄱ, ㄲ, ㅋ, ㅌ으로 적는例 :

ㄱ - 국 (국에, 국을, 국맛)

막다 (막아, 막으면)

ㄲ - 밖 (밖에, 밖을)

닦다 (닦아, 닦으면)

ㅋ - 부엌 (부엌에, 부엌을, 부엌문)

1949年 12月 30日 發行

朝鮮語文法 (計 81 回)

編纂 朝鮮語文研究會

發行 朝鮮語文研究會

平壤市 元泉里 2 番地

印刷所 文化出版社

平壤市 里門里 85 番地

7-13077

30,000 部

Bibliography 3

(1)

— 폭자의 질문 —

새 자모 **ㄹ**, **ㅂ**, **△**, **○**, **ㄩ**, **ㅣ**

에 대하여

연 구 부

서 론

1. 새 자모의 음'가'
2. 새 자모의 이름
3. 새 자모의 제자 원리
4. 새 자모의 필요성과 그 용도
5. 새 자모 제정의 철자식 우'집

서 론

신 철자법에서 새롭이 제정한 자모는 **ㄹ**, **ㅂ**, **△**, **○**, **ㄩ**,
또합 6 자다.

새 자모는 조선어의 '이음'조직과 '형태' 구조를 침이 성찰한
결과 생기니 조선어의 표기에 반드시 필요한 문 자를인 것이다.

'문'자만 '이음을 시각적으로 고정시키' 것으로 '이음과 문'자
는 그 자료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다.

문자는 '네락', '그 나라의 언어음에서 의미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 제정되어(표의 '문'자를 제외), 물리·생리
학적으로 허다하 존재하는 어음을 2·30 개 내지 3·40 개의 문
자에 '개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한개의 자모가 가지는
음 가는 몇몇 있을 수 있으며, 따르서 어음과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 내지 철자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음, 문'자 및 의미가 호상' 통일될 수 있는 철'자법이(그 것은 형태주의 철자법이다)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상과 같은 명제 밑에서 새 자모는 탄생된 것이다.

1. 새 자모의 '음'가

새 자모 6 자는 모두 자음에 속한다.

자모의 '음'가는 발음 기관의 조음 양식(調音樣式)과 위치에 의하여 규정되어며, 또한 그 원이 행위에서 그가 가지는 조건 즉 환경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음으로 변할 수 있다.

조음의 양식이란, 그 음이 형성될 때 발음 기관에서 어떻게 조음 되느냐를 의미하며,

조음의 위치란, 그 음이 형성될 때 발음 기관의 어디서 조음 되느냐를 의미한다.

한 개의 자모가 그 조건에 따라 一 즉, 다른 음과 결합될 때 그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이음 변이(語音變異)라고 한다.

이제 새 자모의 '음'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 **근**은 혀끝을 위'이'음에 향하여 전반 품 떨는 소리로, 그 진동이 근에 비하여 완전하지 못하여 묵음(默音)되거나 한다. (註 1)

이제 **근**을 이음학적으로 분류하면, 조음 위치별로는 혀끝에서 나므로 선단음이 되고, 조음 양식별로는 혀끝을 반쯤 떨므로 반전음(半顛音) 또는 성래를 진동시키는 음이므로 유성음에 속한다.

근음의 '음'가를 종합적으로 규정 짚면 선단 반전 유성음이 되며, 발음 부호로는 (r)에 해당한다.

2) ㅌ. ㅌ는 혀끝을 '위'이' 봄에 물이고 혀의 텅으로 날' 숨을 통과시키면서 내는 소리다.

이제 ㅌ를 어음학적으로 분류하면, 조음 위치별로는 설단음, 조음 양식별로는 설축음 (류음) [(舌側音)(流音)] 또는 성태를 전동시키는 음이므로 유성음에 속한다.

ㅌ 음의 음'가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면 정면 설단 설축 유성음 이 되며, 발음 부호로는 (1)에 해당한다.

3) ㄷ. ㄷ는 혀끝과 '위'이' 봄 사이에서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로 어음학적으로 분류하면, 조음 위치별로는 설단음, 조음 양식별로는 마찰음, 또는 성태를 떤면서 내므로 유성음에 속한다.

ㄷ 음의 음'가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면 설단 마찰 유성음 이 되며, 발음 부호로는 (3)에 해당한다.

△ 음은 우리말에서 (3)로 나타낼 때는 없고 ㅌ(ㅌ), (ㄷ)로 나타난다. (註 2)

4) ㆁ. ㆁ는 성태를 막았다 뒤 그려면서 내는 소리로 어음학적으로 분류하면, 조음 위치별로는 후두음 (성대음) 조음 양식별로는 파열음 또는 성태를 전동시키지 않으므로 무성음에 속한다.

ㆁ 음의 음'가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면 후두 (성대) 파열 유성음 이므로, 발음 부호로는 (?)에 해당한다.

ㆁ소리 ㄱ; ㅋ, ㆁ, ㆁ, ㆁ는 ㄱ, ㅋ, ㆁ, ㆁ, ㆁ에 각기 ㆁ 음이 섞이느 음들로 특히 ㄱ, ㅋ, ㆁ, ㆁ는 설근, 설단, 양근의 파열과 후두의 파열이 동시에 나는 향파열음(兩破裂音)이다.

5) ㆁ. ㆁ는 무 입술 및 혀의 뒤쪽과 연구개에서 동시에 마찰되는 소리로, 어음학적으로 분류하면, 조음 위치별로는 양근을 연우파열이며, 조음 양식별로는 마찰음 또는 성태를 전동시켜므로 유성음에 속한다.

— (36) —

1 음의 '음' 가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면 양준 마찰 유성음 언구개 마찰 유성음으로, 반음 부호로는 (W)에 해당한다.

2 는 조선어에서 헐지하게 日(P)와 Ү(W)로 나타난다. (주3)

3) 1: 1은 히'바타파' 경구개 사이에서 마찰되면서 '나는'을 미로, 이음학적으로 분류하면, 조음 위치별로는 '경구개음', 조음 양식별로는 마찰음 또는 성네를 전동시키는 유성음에 속한다.

1 음의 '음' 가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면, 설면 구개 마찰 유성음이며, 반음 부호로는 (j)에 해당한다.

이제 이상의 모든 경우를 도표로 알기 쉽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치	량	준	설	면	경구개	언구개	성	네
양식								
파열음							慍 (?)	
마찰음	Ү (W)		△ (3)		1 (j)		(Ү)	
설주음			卑 (1)					
반절음			卑 (r)					
유성·무성		유		성		음		무성음

(주1) 고의 류음현상, (주2) △의 교체 (ㄷ ~ ㅌ), (주3)
Ү의 (ㅂ ~ Ү) 교체에 대하여는 내재 제목 세 자모의 필요성과
그 용도에 가 보라.

2 새 자모의 이름

자음의 이름은 두 가지로 정하였다. 하나는 그 자모가 음운론적으로 교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을 학적 발음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 (27) —

이제 새 자모의 이름과 표기와 그 발음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문자	교체의 성질로 본 이름	발음	발음상으로 본 이름
트	리울 또는 죽는 음	(리으)	트 (t)
트	리율	(리율)	트 (t)
△	리옹	(리옹)	△ (3)
트	히옹	(히으)	트 (?)
Ү	ү으	(Ү으)	Ү (W) 반모음 T
1	이	(1)	1 (J) 반모음 I

3. 새 자모의 제자 원리

새 자모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의거하여 발음 기판을 정하여, 그 기본되는 자들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제자하였고, 그 중 △, Ү는 훈민정음 당시와 그 후에도 어느 시기까지 쓰여 다가 없이 글 자를 현대 조선어의 음운 표기로 필요하여 구 시 키 글 자다.

이제 새 자모의 제자 원리, 또는 그 복구시키는 이유를 각각 들면 다음과 같다.

1) 트: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의거하면, 모든 자음은 발음 기판을 상형하여 만들었으나 주지의 사실이다.

설단음은 허끌이 위 이 품에 품는 모양을 상형한 기본자를 “.”

— (42) —

ㅋ = ㄱ + ㅎ

ㅌ = ㄷ + ㅎ

ㅍ = ㅂ + ㅎ

ㅊ = ㅈ + ㅎ

으로 ㅋ, ㅌ, ㅍ, ㅊ은 각기 ㄱ, ㄷ, ㅂ, ㅈ에 후두 파열 "ㅎ" 음이 섞이느 음으로 되며, 실지 조설이 음운 현상에서 그렇게 생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므로 ㅋ, ㅌ, ㅍ, ㅊ에 비하여 그 장도가 약한 ㄲ, ㄸ, ㅃ, ㅉ는 각기 ㄱ, ㄷ, ㅂ, ㅈ에 "ㅎ"보다 세기가 약한 "ㅎ"음이 섞이느 것임을 유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ㄲ, ㄸ, ㅃ, ㅉ가 설준, 설단·량준, 설단과 후두의 파열 음 함께 하는 양파열음인 이미 세 자모의 음'가에서 말한 바이다.

古 '차풀 봐 구시키'는 이러한 성음학적 근거와 그 보나도 "ㆁ"음이 오늘날의 조설이에서 어중, 어말, 심지어 어부에서 까지 활발히 쓰이고 있는 대신, 조선이회 형태 구조에 필요한 음운으로, 마치 (ㆁ-ㆁ)의 교체에 음운 "ㆁ"자를 사용하듯이 (ㆁ-ㆁ)의 교체에 필요하게 되었다.

(4. 세 자모의 필요성과 그 용도에 가보라).

5) ㄵ; ㄿ 자는 "ㅂ-ㄴ"로 교체하는 동시에 두 입술파, 열구개에서 동시 마찰되는 음이므로 "ㅂ" 와 "ㄴ" 를 합자하여 ㄵ로 만들었다. 특히 ㄿ 자는 두 입술파 열구개에서, 마찰되는 음이므로 한 자체에서 우리말의 모든 마찰음의 표식을 각형(角形)으로 특별하여 "ㄿ"로 만들었다.

(즉, ㅅ, ㅈ, ㅊ, 大, ㆁ△가 모자나듯이)

ㄿ 자를 쓰지 않고 충경음 "ㆁ"자를 복구시키기 쓰자는 리론도 있으나, 'ㆁ'는 입술만의 마찰음이므로 경구개 마찰음 "ㄴ"로 만족하기에 음리에 빛지 않는다.

6) ㅣ: ㅣ는 온보음 "|"와 구별하는 표식으로 또한 반모음

근·변격 용언 및 리·변격 용언의 어간의 밤치모으로 사용된다. 이 변격 용언들은 모두 소멸적 교체에 속하는데, 근사모는이 음운의 소멸적 교체 세칙을 중요시하여 형태부를 고정시키고 있는 문자로 탄생되었다.

근: 리·변격 용언은 근—으로 교체하는데, 여기에 근 자모를 산용하여 매개의 형태부(어간 및 도)를 고정시킨었다.

례: 놀다 푸를다.

교체	근		
(근) — (으)			
근·변 { 놀다 노 니 다	놀다	노 니 니	놀 니 니 다
놀고 노 니	놀고	노 니	놀 니
노라 노 오	놀아	노 오	놀 오
리·변 { (푸를다) 푸르 니 니 다	푸를다	푸르 니 니 니	푸르 니 니 니 다
(푸를고) 푸르 니	푸를고	푸르 니	푸르 니
푸르려 푸르 오	푸를여	푸르 오	푸르 오

근 자를 쓰지 않고 교체되는 음에 따라 밤음 대로 표기하면, “놀” “푸를”의 형태부는 “노, 노” 푸를 “푸르”로 뺀하여, 로의 형태부는 “아, 어”가 “라, 티”로 뺀하여 민적이 되어, 동일한 개념을 가지는 것과 여러 가지 형태로 표기된다. 그렇나 종래에 “ㅎ” 밤치 모 용언을 소멸되든 안 되든 “ㅎ” 밤치모을 언제나 표기하여, 전격 용언으로 보듯이 “근” 자를 새로 재정하여 표기함으로써 매개의 형태부는 고정되고, 다른 모든 교체와 마찬가지로 짐상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위 근·변격 용언은 “ㄴ, ㅁ, ㅅ, ㅇ” 를 무음으로 하는 티 모 앞에서 줄된다. 그렇는데 소위 리·변격 용언은 “ㄴ, ㅁ, ㅅ, ㅇ” 이외의 티·위에서도 줄는 일이 있으나, 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한으로써 국·소수의 (세밖에 없는) 리·변·격을 다수의

— (16.) —

교과 별언어에 통일하지 않고 주로 있는 것이다.

근 반(反), 레(列)

(1) 소위 교과 반(反)

갈다(耕), 길다(長), 날다(飛), 달다(甘)
풀니(曉), 편다(偏), 살다(生), 알다(知)
줄다(削)……용언의 “아간기”로 소리로 끝난 것은 모두 주는
“고”을 끝다.

(2) 소위 라 면(列)

이불다(至), 누불다(黃), 푸불다(青); (셋 밖에 없다.)
(무기). 교과 근은 음운론적으로 다르니 “근”은 “ㄴ, ㅁ,
ㅅ, 오” 앞에서 말도사 줄지만 “고”은 줄지 않는다.
예: 그—불니, 불비니다, 불지니, 불오

교 불노(不怒) 불법(不法) 불소(不少) 불오(不娛)
여기에서 “근”은 “고”과는 음운론적으로 다르며; 또 디귿야 할
음운임을 알고 수 있다.

2) 이: 이 자모는 원칙적으로 한 형태로 안화·무·모음 사이
에서 아무 뜻이 없어, 나는 실측음의 표기에만 사용된다. 종래에
는 이 경우에 “고”을 써 왔으나 “고”을 아무리 거듭하더라도 실측
음으로 될까닭이 없으므로 이는 유리에 맞지 않는다.

이 자모는 종래의 소위 라 면(列) 용언, 체언 및 그밖에 품
사의 어근의 두 모음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어, 나는 실측음의 표
기로 쓰이는데, 그 래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소위 라 면(列) 용언

흐트다 흐美貌 흐랐다, 흐리다

오르다 오름 오랐다 오리다

의를 제해 대로

흐르다 훔미 훔었다 훔리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올리다

루 직으면 험해(汗) 이 간은 “흐고, 훔, 오르, 올”고, 루 “아,

— (47) —

이, 았, 었”은 “타, 태, 했, 혔” 으로 말하나, “타” 자 모음을 쓸 때
또한 “—” 음의 발음 규칙을 바로 전용으로서 규칙적으로 표시된다.

“—” 음은 그 발음할 때 원인 원위 모양의 허리, 텁텁하지 않은
때와 같은 자리에 놓이어 있고, 입은 거의 닫히는 목소리를
파는 까닭에 어떤 모유를 발음할 때든지 이 일원의 모양으로
나타나지게 된다. 그러므로 “—” 음, 다음에 시 간적 간격이
없이 다른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 음이 따로 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는 발음법이다. 이와 같은 “—” 음의 발음법을 존중하여
또한 그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 음이 발음되지 않더라도 이를
표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래의 르·번·격은, 유품·으번·격도 처리된다.
예:

고프다 고파 고팠다
슬프다 슬퍼 슬펐다

(2) 체언 및 그밖의 품사.

거데, 더팅이, 아탁가탁, 이툭이툭, 키데

근 대신에 “르” 을 쓸 수도 있으나, 이는 음리에 맞지 않음을
뿐더러, 음운론적으로 서로 다투야 한다. 그것은 같은 선축음으
로 나지만 형태부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르”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와 “르”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

풀로 (풀+로), 칼로 (칼+로) 훌로 (훌+로).

“르”와 “르, 르”를 따로 음운으로 둘 필요성을 문’자 개혁시에 더
욱 필요하다. 만약 “흐트다”를 “ухтуда”로 표기하면 두개의 형
태부 “ухт + д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뜻한 장례 날, 빙, 냉, 써, 끄, 도 그 자형을 따로 하여야
하겠고, 한 자모로 둘 필요성도 알 수 있다.

3) △: △ 자모는 종래의 소위, ㄷ 빙’격 용법의 어간의

장눈 (장눈) 장네! (장네!) 장느냐 (장느냐?) 장거? (장거?)
장나? (장나?)

이것은 마치 “정” 말체로 용언의 “정”가 다음에 오는 자음 “ㄱ”, “ㅈ”과 합하여 “ㅋ”, “ㅌ”, “ㅊ”으로 발음되며, “ㄹ”, “ㅁ”, “ㅂ”, “ㅅ” 앞에
서 “ㅎ”으로 발음되며, “는”, “네”, “느냐”, “거?” “나?” 앞에서는 (?)에 가깝게
발음되는 것과 같다.

예 : ‘령다 (녀다) 넝고 (녀고) 넝소 (녀소) 넝자 (녀자)
薨니 (녀-녀) 넝고 (녀-고) 넝먼 (녀-먼) 넝비녀라 (녀-비녀다)
薨이 (녀이) 넝오 (녀-오) 넝시녀 (薨-시녀)
薨는 (薨는) 넝네! (薨네!) 넝느냐? (薨느냐?) 넝거 (薨
거?) 넝나? (薨나?)

() 안은 발음 표시, “→”로는 장음을 표시.

○ 말체로 예 :

궁나 (劉), 낭다 (癡, 儒), 봉다 (注), 원다 (猿)
종다 (紺) 징다 (攬) 징다 (作) 쟁다 (拾) 쟁다 (組合)

5) ㄩ: ㄩ 자모는 종래의 소위 ㅂ 범(僻) 음운의 어간의 말체
으로 사용된다. ㅂ 범(僻) 음운은 운문론적으로 상관적 교체에 속하
는데 (ㅂ-ㄩ), 이 상관적 교체의 음운을 표시한 문자인 종태
에 없었기 때문에 범(僻) 음운으로 인정하였다.

ㄩ 자모는 (ㅂ) — (ㄩ) 의 상관적 교체 법칙을 존중하여,
형태부를 고정시키고 수 있는 문자로 한정되었다.

ㄩ는 당시 마찰음으로 조선어에서 마찰음이 무성 자음 앞에
서 흔히 동위자의 내과음으로 변하는 듯이 [웃다 (울다) 둘다
(둘다), 쓸다 (졸다) 낫다 (낫다) 있다 (잇다)], 대체 내과
음으로 변한다. (존경의 “서”를 제외하고)

례	교	체	표	기
꼰다 (紺)	(ㅂ) 꼰다	(ㄩ) 꼰다	꼰다 꼰다	

— (60) —

공교 고우니		공교 공우니	
례	교	체	표
웃나 (笑)	(으) (스)		
	웃다 우시	웃다	웃어
	웃고 우스니	웃고	웃으니
	웃치 우서처	웃치	웃어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웃다, 웃어”가 초급도 빙격이 아니었다면, “웃다, 웃어”도 초급도 빙격이 아닐 것이다.

(부기 1) “으, ń”가 로와 겹합될 때 결합 모음 “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으”는 “으”과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끊임되어, 무성 자음 앞에서는 그 음과 합하여 빙음을 이루어, 어간은 개음전로 되기 때문이다. (통다→초라, 왕다→이파). 본래 결합 모음 “으”는 문법적 의미는 전혀 없고, 빙치 모음과 사이의 빙음을 고루기 위한 순식음론적 현상 이므로, 어간 빙치 모음이 죽거나 빙어기의 빙치 모음리가 없는 곳에 필요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으, ń” 빙치 모음 형태론적으로는 빙치도 있으나, 이음론적으로는 빙치 모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하락).

“ń”는 그 뒤 모음이 한모음이여서 조진이에 있어 반모음 “이”와 같이 반독적으로 놓히 음전을 이룰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음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모음 “으”는 “으”에는 물론 능, 능, ń에도 필요 없다.

(부기 2) ń자는 문자 개혁 이후에 아무 뜻이 없이 나온 “과”, “세”, “녀”, “궤”의 첫소리 표기로 사용하게 된다.

예: 낙(왕), 그녕(왕), 냐(왜), 냐(왜)

별자 (원산), ㄱㅖ (례)

그렇나 무 형태부에서 “고, ㅋ”가 “ogn”, “ㅏ”, “ㅓ”가 “oy”로
발음되는 것은 “과, 애”로 표기한다.

례 : 오다 (고다) 와 (고ト) 했다 (고ト었다)!

쑤다 (쓰트다) 땡 (쓰트) 했다 (쓰트었다)

문’자 개혁 이전에 본 과, 애, 쉬, 예 뿐인 곳에는 “으”자를
더하여 화, 애, 위; 해효 쓴다.

6) 1 : 1 자모도 원칙적으로 용언에만 쓰인다. 용언의
어간의 끝 음이 “ㅣ”고, 그 다음에 모음 토가 와서 이와 합하여
한 음절을 이루는 것은 “ㅣ”자를 쓰지 않고 반모음 “1”자를
쓴다. 그것은, 온모음 “ㅣ”가 가장 강한 모음으로 다른 모음을
동화 시키고 찌어인정 동파당하기는 어렵느 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 현실이 모음 “ㅣ”로 끝난 것들의 대다수가 그 다음 모음과
한 음절로 발음되는 법칙을 존중하여, 형태부를 고정시키어야 하
겠기 때문이다.

이제 온모음 “ㅣ”와 반모음 “1”를 구별하여 보면,

가지다 (명사) } 세 음진
가졌다 (동사) }

가지여서 가지였다 (네 음진)

가지어서 [가져서], 가지였다 [가졌다] | (세 음진)

만약 용언 가지다 (持)를 말음 대표

가지다 가지 가졌다.

만약 표기 하면 어간의 형태부는 “가지, 가지”로 표기하여 “持”
의 뜻이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

(1) 반모음 “1”로 적어야 할 데 :

졌다 (負), 치다 (打), 소름다 (寒), 먹이다 (便食)
앉히다 (使一坐), 밀치다 (推), 끌리다 (使一見)

— (52) —

들리다 (使, 被—의)

(2) 운모음 “ㅣ”로 적어야 할 데 :

기다	기여	기였다
시다	시여	시었다
미다	미여	미었다
파다	파여	파였다

(교전에서 “-이”로 끌난 용언 어간은 거의 운모음 “ㅣ”로 표기된다.)

(부기) ㄹ, ㅁ, ㅂ, ㅈ, ㅂ, ㅣ는 이상의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타사로 전성한 경우에도 쓰인다.

례 :	ㄹ	높음,	알	길이	얼음
	ㅁ	흐리	오르		
	ㅂ	검음,	닿음박질,	검음검이	
	ㅈ	징음,	놓음		
	ㅂ	득	죽이,	끈이,	새름에
	ㅣ	반치	느리	알리	

5. 세 자모 제정의 철자상 우·접

이상 세 자모의 음·가, 이름, 제자 원리, 및 그 용도에 대하여 말한 바와 같이, 세 자모는 조선어의 음운 조작과 형태 구조를 깊이 성찰한 데서부터, 또한 언어가 사회적 의식이며, 인간 교제의 중요한 주단이라는 언어의 본질로 우리 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자이다. 그로 말미암아 조선어 철자법은 형태주의 철자 원칙에 일관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세 자모 사용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우·접을 들면,

1) 언어에 있어서 의미와 표기가 완전히 통일된다.

2) 소위 면·계·용언은 없어지고, 각기의 형태부는 데 외

Bibliography 3 (2)

新 緝字法에 依하여
區別되는 同音 異義語

內 容

1. 半母音 “ㄴ”와 은母音 “ㄹ”
2. 舌端 韻音 “ㅌ”
3. “ㅌ”가 “ㄷ, ㅅ, ㅈ”로 分離된 것
4. “ㄹ”가 “ㅌ, ㅅ”로 分離된 것
5. “ㄹ”가 “ㅌ, ㄹ”로 分離된 것
6. “ㄹㄹ”가 “ㅌㅌ”로나 “ㅅ, ㄹ”로나 “ㅌ”로 分離된 것
7. “ㅂ”가 “ㅍ, ㅍ”로 分離된 것
8. “ㄷ 穩格用言”으로 分離된 것
9. 分離符 “,”로 分離된 것
10. 頭音 “ㄴ, ㄹ” 表記로 分離된 漢字語

조선 어문 연구하는 조선 어문의 精一과 發展을 為하여, 朝鮮語 新緝字法 を 制定 發表하였으려, 이어서 先進 言語 理論에 立脚하여, 通來의 文法서의 複多한 결함들을 求정한 科學的인 “조선어 文法”을 公開하여, 조선 어문 精一의 基礎를 確めた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事實입니다.

따らく서, 一般은 이 세 **two** 철자법, 새 **two** 文法에 對하여 많은 기대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는 앞으로 新緝字法, 새로 制定한 “조선어 文法” 대한 論文 資料, 譯註等을 더 많이 소개함으로써 讀者 여러분의 기대에 統答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하본 것은 “조선어 文法”으로 말미암아 相當히 大量의 同音異義語들이 規範的으로 地別되게 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本篇에서 뽑아 여러분에게 학습자로서 提供

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從來의 “한글 및 충법 통일안”이 얼마나 물질화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선어 철자법”的 과학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 半母음“ㅣ”와 은母음“丨”

신 철자법에 있어서 반모음 “ㅣ” 자모를 새로 사용함으로 단미 않아, 문리되는 어휘로 용언의 끝 음절인 반모음 “ㅣ”와 은모음 “丨”의 차이점 또 용언의 끝 음절인 반모음 “ㅣ”와 명사의 끝 음절인 은모음 “丨”의 차이점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배별하고자 한다. 예

가시다 (荆) → 가시다

가시고 → 가시고

가시다 (行) → 거시다

가시고 → 거시고

가시였다 → 가시였다

가시니 → 가시니

가시였다 → 가시웠다

가시니 → 가шин니

가십니다 → 가십니다

가십니다 → 가십니다

다음에 구 'ㄱ'자와 신 'ㄱ'자를 대조하여 보기로 한다.

(1) 송언의 끝 음절의 반모음과 은모음의 차이로 단미 않아 문리된 어휘

다니다 (往) → 다니다

아니다 (否)

모시다 (侍) → 모시다

시다 (醜)

모이다 (會) → 모였다

이다 (或)

스미다 (侵) → 스미다

미다 (製窓戶紙)

지펴다 (撫) → 지펴다

펴다 (發)

하비다 (搔) → 하비다

비다 (虛)

안기다 (被抱) → 안기다 기다 (匍)

(2) 명사의 끝 음절의 온모음과 음절의 끝 음절의 반모음의 차이로 말미암아 분리된 어휘

가치다 (荆) → 가시다	가시였다
가시다 (行) → 기시다	기시였다
가지다 (茄子) → 가지다	가지였다
가져다 (持) → 가지다	가지였다
다리다 (橋) → 다리다	다리였다
다리다 (熨) → 다리다	다리였다
댕기다 (蕩紐) → 맹기다	맹기였다
댕기다 (引火) → 맹기다	맹기였다
모시다 (茅) → 모시다	모시였다
모시다 (侍) → 모시다	모시였다
모이다 (餌) → 모이다	모이였다
모이다 (會) → 모이다	모이였다
오리다 (鵝) → 오리다	오리였다
오리다 (挨) → 오리다	오리였다

2. 舌端 半卷舌音 “ㄹ”

신 철자법에 있어 철단 반귀설음 “ㄹ” 자 모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간의 말음인 “ㄹ”가 “ㄹ”로 분리되면서, 종래 철자법에 “ㄴ, ㅂ, ㅅ, ㅇ” 토 앞에서는 발음되지 않는 경우, “ㄹ”를 생략하여 표기하면 것인 데, 이것이 어간의 끝 음절에 말치고이 없는 것과 혼동하여 철자 하던 것이, 신 철자에는 어간의 말음이 “ㄹ”로 표기 되므로 엄연히 분리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파다 (掘) → 파다	파니 → 파니
팔다 (賣) → 팔다	파니 → 팔니
팜하다 → 팜니다	파시다 → 파시다

팔니다 → 팔ㅂ니다.

파오 → 파오

파오 → 팔오

다음에 “근”로, 한미암아 분리되는 어휘를, 삽구 철자에 대조하여 배운다.

가오 (行) → 가오

가오 (耕) → 갈오

거치오 (過) → 거치오

거치오 (旒) → 거칠오

기오 (罰) → 기오

기오 (長) → 길오

나오 (出) → 나오

나오 (飛) → 날오

마시오 (飲) → 마시오

마시오 (勿) → 말시오

모지다 (角) → 모짓다

모시오 (惡) → 모질오

미오 (窓戶) → 미오

미오 (推) → 밀오

부시다 (洗) → 부싈다

부시다 (吹) → 불시다

비오 (盛) → 비오

비오 (乞) → 빌오

사오 (買) → 사오

사오 (生) → 살오

서오 (立) → 서오

서오 (生疎) → 설오

자오 (眠) → 자오

자오 (細) → 잘오

파실다 → 팔시다

갑니다 → 갑니다

갑니다 → 갈ㅂ니다

거칩니다 → 거치ㅂ니다

거칩니다 → 거친ㅂ니다

집니다 → 집니다

집니다 → 길ㅂ니다

남니다 → 남니다

남니다 → 날ㅂ니다

마십니다 → 마시ㅂ니다

마십니다 → 말시ㅂ니다

모질니다 → 모지ㅂ니다

모질니다 → 모질ㅂ니다

밀니다 → 밀니다

밀니다 → 빌ㅂ니다

부싩니다 → 부싱니다

부싩니다 → 불시ㅂ니다

립니다 → 립니다

립니다 → 빙ㅂ니다

살니다 → 살니다

살니다 → 살ㅂ니다

설니다 → 설니다

설니다 → 설ㅂ니다

잡니다 → 잡니다

잡니다 → 잘ㅂ니다

— (88) —

주오 (給) → 주오
 주오 (減) → 줄오
 지오 (負) → 지오
 지오 (泥) → 질오
 트오 (開隙) → 토오
 트오 (振) → 훔오
 파오 (掘) → 파오
 파오 (寶) → 팔오
 푸오 (汲) → 주오
 푸오 (解) → 풀오
 까오 (解) → 까오
 자오 (斂) → 짤오
 고오 (消) → 고오
 고오 (曳) → 꿈오
 쓰오 (背) → 쓰오
 쓰오 (拂) → 쓸오
 이오 (蹴) → 이오
 이오 (興) → 일오

출니다 → 출니다
 출니다 → 출습니다
 전니다 → 전니다
 접니다 → 접니다
 들펴니다 → 들펴니다
 들펴니다 → 들펴니다
 풀니다 → 풀니다
 입니다 → 입니다
 입니다 → 입니다

3. “ㄷ”가 “ㄷ, ㅅ”로 분리된 것

신 철자법에 있어 “△”자호를 새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
갈의 말은 “ㄷ”가 “ㄷ, △”로 분리되는 어는 다음과 같다.

걸다 (捲) → 걸다	걸고 → 걸고
걸다 (步) → 걸다	걸고 → 걸고
묻다 (姻) → 묻다	묻고 → 묻고
묻다 (問) → 묻다	묻고 → 묻고

4. “모”가 “ㄱ, ㅅ”로 분리된 것

- (88) -

전 철자법에 있어 “ㄹ, △”자모를 새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간의 말음 “ㄹ”가 “ㄹ, △”로 분리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걸어 (掛) → 걸어	걸이 → 걸이
걸어 (步) → 걸어	걸이 → 걸이
걸어 (長) → 길어	걸이 → 길이
길어 (汲) → 깊어	길이 → 깊이
달아 (衡) → 달아	달음 → 달음
달아 (走) → 달아	달음 → 달음
들어 (舉) → 들어	들음 → 들음
들어 (聽) → 듣어	들음 → 듣음
물어 (咬) → 물어	물음 → 물음
물어 (問) → 물어	물음 → 물음
불어 (吹) → 불어	불음 → 불음
불어 (殖) → 불어	불음 → 불음
걸어 (蹇脚) → 걸어	걸음 → 걸음
걸어 (浸透) → 걸어	걸음 → 걸음

5. “ㄹ”가 “濡, ㄹ”로 분리된 것

전 철자법에 있어 “濡, ㄹ”자모를 새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간의 끌 음절인 “로”가 “濡, ㄹ”로 분리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濡”로 분리된 것
누르다 (黃) → 누를다	누릅니다 → 누를니다
누르다 (壓) → 누르다	누릅니다 → 누를니다
이르다 (至) → 이를다	이릅니다 → 이를니다
이르다 (早, 而) 이르다	이릅니다 → 이를니다

6. “ㄹ” 가 “濡, ㄹ”로나 “△, ㄹ”로 나

“ㄹ”로 분리된 것

전 철자법에 있어 “濡, △, ㄹ”자모를 새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간의 끌 음절인 “로”가 “濡, △, ㄹ”로 분리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 암아, 어간의 두 모음 사이에 세 “교운”로 계면 것을 “**교교**”
+ “△고”로나 “으”로 분리되어 어휘는 다음과 같다.

갈리다 (被, 使一磨, 磨) → **갈리다** “갈립→갈리”

갈리다 (被使一分) 가의다 “갈립→가의”

걸리다 (被一掛) → **걸리다** “걸림→걸리”

걸리다 (使一步) → **걸리다** “걸림→걸리”

걸리다 (使一濾) → **거리다** “걸림→거리”

걸리다 (使一勝負) → **걸리다** “걸림→걸리”

걸리다 (疾) → **거리다** “걸림→거리”

걸리다 (使一汲) → **김리다** “걸림→김리”

걸리다 (被一養) → **기리다** “걸림→기리”

날리다 (被使一飛) → **날리다** “날림→날리”

날리다 (翔) → **나리다** “날림→나리”

낼리다 (撤) → **널리다** “낼림→널리”

낼리다 (使一擴) → **너리다** “낼림→너리”

눌리다 (被一焦) → **눌리다** “눌림→눌리”

눌리다 (被一壓) → **누탁다** “눌림→누탁”

달리다 (被一懸衡) → **달리다** “달림→달리”

끌리다 (走) → **달리다** “달림→달리”

끌리다 (力不及) → **다리다** “달림→다리”

돌리다 (回復, 使一回) → **풀리다** “돌림→풀리”

풀리다 (分配) → **도리다** “돌림→도리”

풀리다 (仲裁被一捲) → **말리다** “풀림→말리”

풀리다 → (被使一乾) → **마리다** “풀림→마리”

풀리다 (被, 使一咬) → **풀리다** “풀림→풀리”

풀리다 (使一軟, 軟) → **무리다** “풀림→무리”

풀리다 (退延期) → **무리다** “풀림→무리”

풀리다 (被使一盜) → **바리다** “풀림→바리”

풀리다 (使一折) → **바리다** “풀림→바리”

— (91) —

불리다 (使一吹) → 불리다
 불리다 (使一殖) → 불리다
 불리다 (被一招) → 부리다
 불리다 (燎) → 부리다
 졸리다 (睡) → 졸리다
 졸리다 (促敎一敎) → 조리다
 얼리다 (使一凍) → 얼리다
 얼리다 (欲, 弄) → 어리다
 올리다 (使一登) → 오리다
 올리다 (呈) → 오리다

불림 → 불리ㅁ
 불림 → 불리ㅁ
 불림 → 부리ㅁ
 불림 → 부리ㅁ
 졸림 → 졸리ㅁ
 졸림 → 조리ㅁ
 얼림 → 얼리ㅁ
 얼림 → 어리ㅁ
 올림 → 오리ㅁ
 올림 → 오리ㅁ

7. “급”가 “급, 𠮟”로 분리된 것

신 철자법에 있어 “급”자 모를 새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간의 말음인 “급”가 “급, 𠮟”로 분리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굽다 (屈) → 굽다	굽고 → 굽고
굽다 (妍) → 굽다	굽고 → 𠮟고
굽다 (曲) → 굽다	굽고 → 굽고
굽다 (燒) → 굽다	굽고 → 𠮟고

8. “으, 변격용언”으로 분리된 것

신 철자법에 있어 각 형태부를 고정화 시키므로 말미암아
어간의 끝 음절이 “으”로 된 용언으로서 분리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잠기다 (浸) → 잠기다	잠겼다 → 잠기였다
잠기다 (被一鎮) → 잠기다	침겼다 → 침기였다

9. 철음부 “ㄱ”로 분리된 것

Bibliography 3

(3)

예: (甲 을 뺏고 乙 을 버리다.)

甲	乙
---	---

국기 (國旗)	구기
---------	----

벗고 (脫)	비고
--------	----

압박 (壓迫)	아파
---------	----

는). 한 형태부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철죽음은 韓로
적는다.

예: (甲 을 취하고 乙·丙 을 버리다.)

甲	乙	丙
---	---	---

이탁이탁	알떡달다	풀죽질나
------	------	------

여탕이	덜렁이	딜렁이
-----	-----	-----

거데	전데	걸데
----	----	----

시룩시룩	실룩실룩	실죽실죽
------	------	------

어른	얼른	얼는
----	----	----

파티	팔퇴	팔퇴
----	----	----

흐믓다	울.ListBox.	울났다
-----	------------	-----

가떴다	찰랐다	찰났다
-----	-----	-----

거렸다	걸렸다	걸쳤다
-----	-----	-----

누웠다	눌렀다	눌쳤다
-----	-----	-----

흐렸다	풀렸나	풀쳤다
-----	-----	-----

따탁서 두개의 형태부 사이에서 나는 철죽음은 유험법으로
마로 따로 “ㄹ, ㄹ”로 적는다.

예: (甲을 죽이고 乙丙을 떠리느니)

甲	乙	丙
흘로	흐로	흘노
칠로	기로	친노
풀로	도로	풀노

3. 꿀소리(末音)의 표기

꿀소리의 표기에 있어 철자법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말글 또는 현관적이지 않는 음의 앞에서 대마의 [ㅂ], [=], [-],
 철축음의 [ㅌ]로 발음되는 음도 그 이의 형태부를 고정시키기 위
 하여 나음과 같이 칙는다.

1). [ㅂ]로 발음되면 '도 "ㅂ. ㅍ. ㅂㅅ. ㅂ"로 칙는 예:

ㅂ — 밥 (飯) (밥에, 밥을, 밥상)

엎다 (負) (엎어, 엎으면)

엎 — 옆 (側) (옆에, 옆을, 옆집)

엎다 (覆) (엎어, 엎으면)

값 — 값 (價) (값에, 값을, 값없다)

없다 (無) (없어, 없으려)

밀 — 밀인다 (眞似) (밀언어, 밀언문)

2). [=]로 발음되면서도 "ㅁ", "ㅌ", "ㄴ", "ㅈ", "ㅊ", "ㅅ", "ㅎ"
 를 칙는 예:

남 — 날 (級) (날에, 날을, 날알)

그렇나 끝 음절에 말^자口이 있을 경우에는 “어”로 쳐는다.

침다	침어	침었다
햇다	햇어	햇었다
길다	길어	길었다
윙다	윙어	윙었다

[후기 1] 어근의 끝 음절이 “-,-,-,-,-”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음도가 음 쳐에 다음과 같은 모음 적용 (母音適應) 의 현상이 일어난다.

(1). [-++] > [으+]

오우다	와	웠다
-----	---	----

(2). [-++] > [으+-]

매우다	매위	매웠다
싸우다	싸위	싸웠다

([-], [+])는 원순 (圓順) 모율이므로, 그 뒤에에 차운색
聲色이 없어 고율이 오는 경우, 양순 마찰음 [으]로 轉하여 그
고율과 차운음을 이루는 것은 자연 스텝 노 단을 떠 이다)

(3) [-++] > [-]

오르다	오 ^르	오랐다
마르다	마 ^르	마랐다

(4) [-++] > [-]

프다	퍼	팠다
흐르다	흐 ^르	흐렸다

거트가	거트	거 다
누트나	누트	누 타
기르다	기르	기 다

(([-])는 그 발음시의 흥행강의 형상에 하는 자연한 위치에 있고 입은 거의 달하)는 모양으로 하는 까닭에 어려운 모음을 발음할 데든지 이 흥행강의 형상을 그 시발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다음에 자간체 변하여 설여. 도움이 오는 경우, 따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런느 말음법이다. 이와같이 (-) 음의 발음을 규칙을 따로 활용으로 써 송래의 소리 “르 변적 용언”은 규칙적으로 쓴다.

(5) [ㅏ + ㅓ] > [ㅓ]

가	가아 (가)	가았다 (갔더)
사다	사아 (사)	사았다 (샀다)

(동일한 음 [ㅓ]가 연속될 때에 그중 하파를 줄이는 것은 자연스럽느 발음법이다. 이때 표기법 상에서도 “ㅓ”를 생략할 수 있다.)

(6) [ㅗ + ㅓ + ㅓ] > [ㅓ + ㅓ], [- + ㅓ + ㅓ] > [ㅓ + ㅓ]

보이다 보이여 (펴여)	보이였다 (펴웠다)
뜨이다 뜨이여 (펴여)	뜨이였다 (펴웠다)
쓰이다 쓰이여 (썩여)	쓰이였다 (썩렸다)

(([ㅗ + ㅓ] > [ㅓ]) . - + ㅓ] > [ㅓ]도 변모음하는 것은 그 음의 상 자연한 발음법이다. 이때 표기법 상에서는 둘자를 합자하여 “ㅓ, ㅓ”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의미상 혼용과

(11) 교체 「母」 — [p] → 표기 ㅂ

[굽다] (妍)	[교와]
[굽다]	[교우·니]
[굽고]	[교와서]
[굽여]	[교우·연]
[굽뇌]	[교우시·니]
[굽소]	[교우·약]

이렇게 발음되다. 이것을

굽다	굽아
굽다.	굽어
굽고	굽아서
굽여	굽연
굽뇌	굽여
굽소	굽여

로 표기함으로써, 형태론(母一) 가 표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굽다 (燒), 던다 (暑), 맷다 (辛)

긴다 (補), 둡다 (助), 신다 (易)

눕다 (臥), 민다 (曾), 준다 (寒)

이 경우의 교체는 (9) 의 교체와 꼭 같다. 즉 “웃다—웃이”에 있어 [t]—[s] 의 교체를 마찰음 “ㅅ” [s]로써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교와”에 있어 [p]—[pw] 의 교체를 마찰음 “ㅂ” [p]로써 표시하는 것이다.

조선어에 있어 마찰음인 한음 또는 발음되지 않는 다른 음 앞에 서는 동일 조음위치의, 관열음으로 되는 규칙이 있는데 “웃이”에서는 [s]로 발음되는 “ㅅ” す가 “웃다”에서는 [t]로, 발음되는 것과 마찬가자로 “굽아”, “에서”는 [p]로 발음되는 “ㅂ” 차가 “굽다”, “에서”는 [p]로 발음되는

것이다. 공식으로 나락내면.

$$S : t = \pi : p$$

로 한다. “웃다 — 웃으”가 조금도 변격용언이 아니었다면 동일한 물리로 “군다 — 군아”로 변격용언은 아님 것이다.

“よ”의 자형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음은 “굽다 — 고와”, “굽다 — 구워”와 같이 [ㅂ]와 [ㅜ]로 교체하여 [よ]가 양축 ([ㅂ]와 같이)과 연구개 ([ㅜ]와 같이)에서 차출되어 조음되는 음이기 때문에 “ㅂ”와 “ㅜ”를 합자하여 “よ”로 만든 것이다.

이 군자의 新製로 알미안아, “ㅂ—よ”의 교체를 소위 변격 용언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교체와 마찬가지로 정적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또한

굽다 (屈指) [굽다] — 굽아 [고바]

굽다 (妍) [굽다] — 굽아 [고와]

굽다 (屈) [굽다] — 굽어 [구버]

굽다 (撓) [굽다] — 굽어 [구워].

등의 교체가 명확히 구별되게 된다.

(12) 교체, [드] — [느] → 표기 느.

[느다] (晚), [느저]

[느고], [느즈니]

[느지], [느저서]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느다 느어

느고 느으니

느지 느저서

로 표기함으로 셰 형태부 (느—) 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갖다 (備), 굿다 (凶), 맞다 (迎. 被打)

挺好 (揮), 낮다 (低), 빗다 (結)

~○ 의 교체를 소위 변격용언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른 교체와 같이 청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5) 교체 [ㄹ] - 불 - 표기 1

[불다]	[부니]
[불고]	[부고나]
[불자]	[부자나]
[불여]	[부오]

이렇게 발음된다. 이것을

불다	불니
불고	불고나
불자	불자나
불여	불오

로 표기함으로써, 형용부(불-)가 고정된다.

이에 속하는 것.

찰다(辯), 칠다(掛, 肥沃), 칠다(長),
 날다(飛), 둘다(稀, 遊), 둘다(甘, 懸, 量), 둘다
 (拔) 둘다(遠), 둘다(咬) 둘다(推), 둘다(儲), 둘
 다(生疎), 둘다(細), 둘(泥).

아 교체를 보면 (1)의 2

불다, 불고, 불여

에 대하여

부다, 부모나다, 부드나, 부오

로 되어 [로+용언[ㄴ, ㅁ, ㅅ; 오] 앞에서는 반드시 폭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곳에 발자모으로 쓰이는 “ㄴ” 자의 음가가 대체 “ㄹ” 자와는 다른 까닭 때문이다. 즉

“불”(火)은動詞 “나나”(出) 앞에서도

【물나니】로 되여 “물”이 獨音되나

“불”(火)은 褐(나니) 앞에서서는

【부나니】로 되여 “부”이 獨音되며

“물”(水)은 名詞 “소”(牛) 앞에서서도

【물소】로 되여 “물”이 獨音되나

“불”(駁)은 명칭도 “소” 앞에서서는

【무소】로 되여 “무”이 獨音된다.

여기 同一한 “불”앞에도 물을하고 “불”

(不)에 “부, 불, 소, 소”의 두음을 가지는 “노”(怒) “불”

(法) “소”(少) “오”(偶)가 각기 결합되며

不怒(불노),

不法(불법),

不少(불소),

不偶(불오),

로 “불”(火)에 “부, 불, 소, 소”와 두음을 가지는 “노”, “불”, “부나니, 소, 오”가 각기 결합되며

불노타 「부노타」

불나타 「부나타」

불소 「불소」

불오 「불오」

로 되다.

이상으로 복용인 어간의 “불” **火大**은 다른 “부”와 不
일하지 않아 (이름학적으로 부른) 결단정 전파한음〔부〕이다)
로에 따라 복음이 되므로 하물 “부”자로 표시하는
어간의 형태부를 고집하기엔 “부”(부) — “부”와 고체를
위 원칙용인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든 고체로 표시한 마찬가지로
정우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미숙한 바大火과 “비교”

이제 차일과 용인을 통하여 미숙한 어간 반대

것을 알 수 있어, “반모음 1”를 특별히 “1”자로 표시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온 모음 1”와 “반모음 1”를 비교하여 보면;

가지 (먹는 가지; 명사) 와

가지— (책을 가지다; 동사)

에 있어, 자음 토 “다”가 오면

이것은 가지다. (세 음절)

그는 책을 가지다. (세 음절)

로 되여 “가지다”, “가지다”는 다 같이 세 음절이다. 모음 토 “여서”, “였다”가 오면

이것은 가지여서 (네 음절)

이것은 가지였다 (〃)

에 대하여

그는 책을 가지여서 [가져서] (세 음절)

그는 책을 가지였다 [가졌다] (〃)

로 되여 음절 수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것으로 써 “온모음 1”과 “반모음 1” 가 서로 다른 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사의 [가지]와, 동사의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명사의 “가지”는 언제나 “가지”로, 동사의 “가지—”는 언제나 “가지—”로 표기함으로써 그 형태를 고정시키고 수 있다.

“반모음 1”은 원칙적으로 용언 어간의 말음에만 나타나며, 종래 “온모음 1”로 표기되었던 용언 어간 말음은 그 절대 다수가 “반모음 1”로 적어야 할 것이다.

1). 어간 말음을 반모음 1로 적어야 할 데:

치다 (打) 치고 치여 치였다

지다 (負) 지고 지여 지였다

오시다 (來의 尊敬法) 오시고 오시여 오시였다

먹이다 먹이고 먹이여 먹이였다

2). 어간 말음을 온모음 1로 적어야 할 데:

시다 (酸味가 있다)	시고	시여	시였다
미다 (慾月紙를 찢다)	미고	미여	미였다
기다 (개미가 기여가다)	기고	기여	기였다
빼다 (물이 빼다)	빼고	빼여	빼였다

3). 반모음 1로 어간이 끝난 용언으로 부터 결성된 명사의 예:

밭치다 → 밭치
알리다 → 알리
울리다 → 울리
드리다 → 드리

8. 소위 “변격 용언”의 처리

이상 어려 조항에서의 서술로 써 알리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소위 “변격 용언”은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1). 종래의 “근 변격 용언”은 “ㄹ”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예:

울다 (啼) 울고	운니	울어	울입니다	울시니	울오
놀다 (遊) 놀고	놀니	놀아	놀입니다	놀시니	놀오
불다 (吹) 불고	분니	불어	불입니다	불시니	불오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ㄹ”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목음되는 곳에서는 “ㄹ”자를 쓰지 않고

놀다 놀고 노니 놀니다 노시니 노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럼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ㄴ---”, “노---”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 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2). 종래의 “A 변격 용언”은 “○”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5). 종래의 “**모** 변격 용언”은 “**노**”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

가깝다 (近)	가까아	가까니	가깝네	가짜녀?
무겁다 (重)	무겁어	무겁니	무겁네	무겁녀?
눕다 (臥)	눕어	눕니	눕네	눕녀?
매다 (辛)	매어	매니	매네	매녀?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노**”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기깝다 가까와 가까우니 가깝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겁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가깝—” “가까오—” (가까우—)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6). 종래의 “**여** 변격 용언”은 “4. 어간과 ト. 4.”에서 본 바와 같이 “**여**” 토의 사용 규칙을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

하다 (爲) 하이 하여도 하여야 하였으니 하였다

(7). 종래의 “**리** 변격 용언”은 “**근**”음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

이를다 (至)	이를어	이를었다
풀풀다 (青)	풀풀어	풀풀었다
누풀다 (蕷)	누풀어	누풀었다

이에 “**근**”을 “**느**, **느**, **스**, **오**” 이외의 자음 토위에서도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르다], [이르고], …) “**근**”을 발음하는 것

을 원칙으로 삼고 발음하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ㄹ”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 이르다 이르려 이르렀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이르-”, “이르ㄹ-”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물론이다.

(8). 종래의 “ㄹ”변격 용언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음의 발음 규칙을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이곳에 종래의 “ㄹㄹ” 대신에 (갈락, 갈랐다, …) “ㅌ” 자모를 사용한다.

예:

가르다(分) 가탁 가탔다 가悌다

오르다(登) 오락 오랐다 오嘞다

흐르다(流) 흐嚇 흐웠다 흐탸다

기르다(養) 기먹 기뤘다 기탸다

이때 [ㅌ]를 [ㄹ]로 발음하기도 하나 ([가르다], [오르다], [흐르다], [기르다]) [ㅌ]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ㄹ”을 쓰지 않는 곳에서는
가르다, 갈락, 갈랐다, 갈탸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ㄹ”로 써 설측음 (卷側音) “ㄹ”을 대신하게 되나 권설음 (卷舌音) “ㄹ”을 아무리 거듭하여도 설측음으로 될 까닭이 없으므로, 음리상으로 보아 모순이 있다. 또한, “-”음의 발음 규칙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르다 가탁 가탔다 가悌다

와 같이 어간의 형태부가 “가르”, “가르”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9). 종래의 “ㅌ”변격 용언은

기 류 려 쿄 쪽 쿄 フ ロ ド ヲ 1 나 ㅏ ㅓ ㅓ

ㅓ ㅗ ㅓ ㅜ ㅠ ㅡ ㅣ ㅔ ㅖ ㅕ ㅔ ㅖ ㅓ ㅓ

종래의 “나, 내, ń, ńe” 같은 “나, 내, ń, ńe” 등으로 표기되었으므로 (왕 → 그 모나으, 왜 → 嵬, 월 → 月, 웬 → ㄣ) 두 개의 문자가 합성된 것이며, 따라서 자모 가운데 들어 오지 못한다. 그러나 문자 개혁(풀어서 가로 쓰기) 이전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나, 내, ń, ńe 등의 문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왕, 왜, 월, 웬)

다만 용언의 어간파로가 합성된 “나”와 “ń”는 문자 개혁 이후에도 어간의 형태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 “ń”로 써야 한다.

례: 오다 → 와서 왔다

싸우다 → 싸워서 싸웠다

배우다 → 배워서 배웠다

또한 문자 개혁 이전에 있어서는 모음으로 쪽 음절이 시작되는 경우 그 모음의 앞에 ㅇ 표를 붙이노다. (례: 그 ㅅ → 웃, 지 보 ㅏ ㄴ → 집안)

(부록: 받침口 용례)

형태부 내지 낱말의 고정적 표기를 위하여 사용되는 받침口을 전부 들으면 다음과 같다.

ㄱ ㅋ ㅌ ㅍ ㄴ ㄷ ㅌ ㅅ ㅈ ㅊ ㅋ ㅌ
ㄱ ㅎ ㆁ ㄹ ㄱ 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굽다(屈指) 굽다(屈) 밥(飯) 집(家) 탑(塔)

ㅋ 깊다(報) 깊다(深) 높다(高) 늪(沼) 덮다(蓋)
ㆁ 우Ltd(曉) 宝(蔽) 欲(欲) 앞(前)

엎다(覆) 옆(側) 일(葉) 짚(蓆) 짚다(杖)
헝겊(布片)

구 끓다(妍) 굽다(燒) 치다(補) 눕다(臥) 덣다
(著) 솔다(助) 밴다(憎) 맹다(辛) 쉽다(易)
嗦다(寒)

값(價) 가엾다(憐) 부질없다(漫) 시름없다(愁
貌) 없다(無)

ㄷ 걸다(捲) 곧(即) 곧다(直) 굳다(固) 날(穀)
달다(閉) 둡다(昇) 말(毬) 묻다(埋染) 밀다
(信) 말다(受) 엔다(得)

ㄹ 같다(同) 걸(表) 끝(末) 날(個) 말다(任
喚) 밀(底) 맡(田) 맡다(迫) 별(陽) 블다
(付) 블(鼎) 얇다(淺) 팔(豆)

ㅁ 깃(笠) 낫(鎌) 벗다(脫) 웃(衣) 씻다(拭)

△ 깨닫다(覺) 걸다(步) 견다(編) 깊다(汲) 눕다
(焦) 닦다(走) 다답다(臨) 듣다(聽) 둔다
(問) 봉다(殖) 심다(載) 일컫다(稱)

ㅂ 겠다(未來to) 았다(過去to) 었다(過去to) 있다
(有)

ㅂ 갖다(備) 꽂다(插) 꾸짖다(叱) 궂다(凶)
낫(盡) 낮다(低) 늦다(晚) 맞다(迎)
맞다(適·被打) 빛더(結) 부르짖다(叫) 빛(債)
잊다(忘) 젖다(乳) 젖다(濕) 짖다(吠) 찢다(裂)
찾다(尋)

ㅅ 짖(皮膚) 풋(花) 낯(顏) 닻(錨) 빛(捕獸機)
돛(帆) 빛(幾) 햇(色, 光) 쇠(炭) 웃(漆)
웃(柵) 쫓다(從) 쫓다(逐)

ㄱ 국(羹) 녹(錫) 막다(防) 떡(餅) 썩다(腐)
굶(頃) 부엌(厨)

- ㄱ 깎다 (削) 캐다 (折) 겪다 (經) 낚다 (釣)
 닦다 (拭) 끓다 (煮) 밖 (外) 볶다 (炒) 섞다 (混)
 속다 (抄) 엮다 (編)
- ㄴ 넋 (魂) 물 (配分) 삶 (貨)
- ㄷ 검이디 (黑) 기다랗디 (長) 깊디탕다 (深) 낭다 (廣)
 넣다 (入) 높다탕다 (高) 놓다 (放) 놀룽다 (黃)
 닿다 (接) 통풀壅다 (圓) 벌壅다 (赤)
 자그맣다 (小) 좋다 (好) 커다랗다 (大) 펠壅다 (青)
 허옇다 (白) 땅다 (瓣) 빻다 (碎) 쌓다 (積)
 쐐늘쫑다 (冷) 찢다 (搗)
- ㅁ 긁다 (劃) 낭다 (癰 優) 풍다 (注) 맹보다 (窺視)
 잉다 (連) 짱다 (紡) 징다 (攬) 징다 (造)
 쟁다 (拾)
- ㅂ 길 (道) 날 (日) 물 (水)
- ㅂ 깔다 (耕) 걸다 (掛 肥沃) 길다 (長) 날다 (飛)
 놀다 (遊, 稀) 달다 (甘, 掛, 量) 돌다 (回) 멀다 (遠)
 훌다 (噉) 밀다 (推) 벌다 (儲) 불다 (吹)
 쑤다 (生疎) 잘다 (細) 질다 (泥)
- ㅂ 넓다 (廣) 밟다 (踏) 얇다 (薄) 팔덟 (八) 얕다 (薄)
 짧다 (短)
- ㅂ 읊다 (詠)
- ㅂ 굵다 (太) 굵다 (搔) 기슭 (麓) 늙다 (老)
 닭 (鷄) 밝다 (清) 물다 (淡) 밝다 (明) 붉다 (赤)
 엷다 (痘痕 構) 읽다 (讀) 흙 (土)
- ㅂ 활다 (舐) 훑다 (挾拔)
- ㅂ 곳 (向方) 뜯 (撕)
- ㅂ 끓다 (末滿) 끓다 (跪) 끓다 (沸) 끓때 (耗)
 끓다 (穿) 끓다 (精米) 싫다 (厭) 끓다 (病)
 옳다 (可) 입다 (失)

Bibliography 4

북한 「조선말규범집」의 2010년 개정과 그 의미-최호철 (Bibliography 4)

2.1. 조선어 신철자법(1950): 형태주의 표기의 강화

「조선어 신철자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불철저한 형태주의 표기에 대한 비판·검토와 한자 철폐 및 문자 개혁(풀어서 가로쓰기)을 전제한 것으로 「조선 어문 연구회」에서 김두봉의 새로운 견해를 토대로 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철자법상 형태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 철자법은 6·25 동란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사 생활은 실제로 1954년에 개정된 「조선어철자법」 이후부터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정인 「조선어 신철자법」에서는 자모의 수에서 종래의 24자에 「ㄱ, ㅋ, ㅌ, ㅆ, ㅉ, ㅊ, ㅍ, ㅎ, ㅓ, ㅕ, ㅗ, ㅕ, ㅜ, ㅕ, ㅡ, ㅣ」 등 12자와 새 자모인 「ㄹ(ㄹ의 맨 위 가로획을 늘인 것), ㅁ(ㄹ의 왼쪽 위를 막은 것), ㅿ, ㆁ, ㆁ(ㆁ(U의 아래에 세로획을 더한 것), ㅣ(아라비아 숫자와 같음)」 등 6자를 추가하여 총 42자로 규정하였다.⁴⁾ 겹글자 「나, ń, 내, ńe」가 글자의 수에서 빠진 것은 풀어쓰기를 염두에 두고 이들을 「ㄴㅏ, ㄴㅓ, ㄴㅐ, ㄴㅔ」와 같이 적음으로써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자음의 명칭은 「기윽, 니은, 디을, …, 시웃, …, 끼ਊ, … 씨ਊ, …」 식으로 일원화하였고, 편의상의 명칭으로 「그, 느, 드, …, 스, …, 끄, … 쓰, …」 등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자모의 순서는 「ㄱ, ㄴ, ㄷ, …, ㅍ, ㅎ」 다음에 「ㄱ, ㅋ, ㅌ, ㅆ, ㅉ, ㅊ, ㅍ, ㅎ, ㅓ, ㅕ, ㅗ, ㅕ, ㅜ, ㅕ, ㅡ, ㅣ」를 두고 이어서 「ㅏ, ㅑ, ㅓ, ㅕ, ㅗ, ㅕ, ㅡ, ㅣ」 다음에 「ㅓ, ㅕ, ㅗ, ㅕ, ㅓ, ㅕ, ㅗ, ㅕ」를 두었다.

새 자모 「ㄹ」은 ㄹ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음 표기를 위하여(갈다[갈다], 갈니[가니]), 「ㅁ」은 설측음 표기를 위하여(거례[결례]; 가르다[가르다], 가탁[갈라]), 「ㅿ」는 ㄷ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음 표기를 위하여(겁다[겁다], 겁어[거려]), 「ㆁ」은 ㅅ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음 표기를 위하여(잉다[일다], 잉어[이어]), 「ㆁ」은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말음 표기를 위하여(눕다[눕다], 눕어[누워]), 「ㅣ」는 반모음 「ㅣ」로 바뀌는 「ㅣ」 모음의 표기를 위하여(가지다, 오시다) 고안된 것으로서 이는 단어의 표기에서 그 형태를 밝히되 언제나 같은 적는다는 형태주의 원칙을 더욱 충실히 적용하여 활용형의 표기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경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모음이나 자음이 탈락되는 「ㅜ, ㅡ, ㅎ」 불규칙 용언의 일부 활용형에서 이들 모음이나 자음을 그대로 표기한 것,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에서 사이시웃 대신에 두 형태 사이에 이른바 사이표(')를 사용한 것, 한자어 두음에 「ㄴ, ㄹ」의 표기를 인정한 것, 「거뭇거뭇, 불긋불긋, 무덤, 주검, 마감」 등을 「검웃검웃, 靃웃郡웃, 문엄, 죽엄, 막암」 등으로 적은 것, 「아지, 웅」의 표기를 「목아지, 박아지, 집웅」 등으로 적은 것, 「브」의 표기를 「깃브다, 낫브다, 밑브다, 뱃브다」 등으로 적은 것, 「왕, 영」의 표기를 「감왕다, 겹옇다, 놀왕다, 놀옇다, 밟왕다, 밟嫉다」 등으로 적은 것, 「업」의 표기를 「간질업다, 밑업다, 부들업다, 시끌업다」 등으로 적은 것, 「달걀, 쇠고기」를 「닭알(발음은 [달걀]), 소고기」로 적은 것 등이다. 그런데 어미 {어}를 「하-」 뒤에서 뿐만 아니라 「1, ㅣ, ㅓ, ㅕ, ㅗ, ㅕ, ㅜ, ㅕ, ㅡ, ㅣ」 뒤에서도 「여」로 표기한 것이나 한자음의 「ㅋ」 모음인 「ㅖ, ㅖ」를 「ㅖ, ㅖ」로 표기한 것은 전체적인 형태주의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4) 새 자모는 조선어의 어음 조직과 형태 구조를 깊이 성찰한 결과 생긴 조선어의 표기에 반드시 필요한 문자라고 하면서 그 이점으로 의미와 표기의 완전한 통일, 음운뿐 아니라 성음의 이치에도 부합, 소리가 비슷하고 뜻이 다른 단어의 표기상 구별, 외국어의 근사음 표기 가능 등 네 가지를 들었다(김민수 편 1991:103 채인용).

ISO/IEC JTC 1/SC 2/WG 2
PROPOSAL SUMMARY FORM TO ACCOMPANY SUBMISSIONS
FOR ADDITIONS TO THE REPERTOIRE OF ISO/IEC 10646¹

Please fill all the sections A, B and C below.

Please read Principles and Procedures Document (P & P) from <http://std.dkuug.dk/JTC1/SC2/WG2/docs/principles.html> for guidelines and details before filling this form.

Please ensure you are using the latest Form from <http://std.dkuug.dk/JTC1/SC2/WG2/docs/summaryform.html>.
See also <http://std.dkuug.dk/JTC1/SC2/WG2/docs/roadmaps.html> for latest Roadmaps.

A. Administrative

1. Title:	<i>Proposal to add the “6 letters” (Hangul Jamo)</i>	
2. Requester's name:		
3. Requester type (Member body/Liaison/Individual contribution):	<i>Individual contribution</i>	
4. Submission date:		
5. Requester's reference (if applicable):		
6. Choose one of the following: This is a complete proposal:	Yes	
(or) More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later:		

B. Technical – General

1. Choose one of the following: a. This proposal is for a new script (set of characters): Proposed name of script:		
b. The proposal is for addition of character(s) to an existing block: Name of the existing block:	<i>Hangul Jamo Extended-A, B</i>	
c. Number of characters in proposal:	7	
3. Proposed category (select one from below - see section 2.2 of P&P document): A-Contemporary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Specialized (small collection) <input type="checkbox"/> B.2-Specialized (large collection) <input type="checkbox"/> C-Major extinct <input type="checkbox"/> D-Attested extinct <input type="checkbox"/> E-Minor extinct <input type="checkbox"/> F-Archaic Hieroglyphic or Ideographic <input type="checkbox"/> G-Obscure or questionable usage symbols <input type="checkbox"/>		
4. Is a repertoire including character names provided? a. If YES, are the nam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naming guidelines” in Annex L of P&P document? b. Are the character shapes attached in a legible form suitable for review?	Yes	
5. Fonts related: a. Who will provide the appropriate computerized font to the Project Editor of 10646 for publishing the standard? <i>I will.</i>		
b. Identify the party granting a license for use of the font by the editors (include address, e-mail, ftp-site, etc.): <i>muneaki.obaashi@gmail.com</i>		
6. References: a. Are references (to other character sets, dictionaries, descriptive texts etc.) provided? Yes b. Are published examples of use (such as samples from newspapers, magazines, or other sources) of proposed characters attached? Yes		
7. Special encoding issues: Does the proposal address other aspects of character data processing (if applicable) such as input, presentation, sorting, searching, indexing, transliteration etc. (if yes please enclose information)? No		
8. Additional Information: Submitters are invited to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Properties of the proposed Character(s) or Script that will assist in correct understanding of and correct linguistic processing of the proposed character(s) or script. Examples of such properties are: Casing information, Numeric information, Currency information, Display behaviour information such as line breaks, widths etc., Combining behaviour, Spacing behaviour, Directional behaviour, Default Collation behaviour, relevance in Mark Up contexts, Compatibility equivalence and other Unicode normalization related information. See the Unicode standard at http://www.unicode.org for such information on other scripts. Also see Unicode Character Database (http://www.unicode.org/reports/tr44/) and associated Unicode Technical Reports for information needed for consideration by the Unicode Technical Committee for inclusion in the Unicode Standard.		

¹ Form number: N4502-F (Original 1994-10-14; Revised 1995-01, 1995-04, 1996-04, 1996-08, 1999-03, 2001-05, 2001-09, 2003-11, 2005-01, 2005-09, 2005-10, 2007-03, 2008-05, 2009-11, 2011-03, 2012-01)

C. Technical - Justification

1. Has this proposal for addition of character(s) been submitted before? If YES explain	<input type="text"/> -	No
2. Has contact been made to members of the user community (for example: National Body, user groups of the script or characters, other experts, etc.)? If YES, with whom?	<input type="text"/> -	No
3. Information on the user community for the proposed characters (for example: size, demographics, information technology use, or publishing use) is included? Reference:	<input type="text"/> -	No
4. The context of use for the proposed characters (type of use; common or rare) Reference:	<input type="text"/> -	Rare
5. Are the proposed characters in current use by the user community? If YES, where? Reference:	<input type="text"/> -	No
6. After giving due considerations to the principles in the P&P document must the proposed characters be entirely in the BMP? If YES, is a rationale provided? If YES, reference:	<input type="text"/> -	No
7. Should the proposed characters be kept together in a contiguous range (rather than being scattered)?	<input type="text"/> -	Yes
8. Can any of the proposed characters be considered a presentation form of an existing character or character sequence? If YES, is a rationale for its inclusion provided? If YES, reference:	<input type="text"/> -	No
9. Can any of the proposed characters be encoded using a composed character sequence of either existing characters or other proposed characters? If YES, is a rationale for its inclusion provided? If YES, reference:	<input type="text"/> -	No
10. Can any of the proposed character(s) be considered to be similar (in appearance or function) to, or could be confused with, an existing character? If YES, is a rationale for its inclusion provided? If YES, reference:	<input type="text"/> -	No
11. Does the proposal include use of combining characters and/or use of composite sequences? If YES, is a rationale for such use provided? If YES, reference: Is a list of composite sequences and their corresponding glyph images (graphic symbols) provided?	<input type="text"/> - <i>Unicode's self</i>	Yes Yes No
12. Does the proposal contain characters with any special properties such as control function or similar semantics? If YES, describe in detail (include attachment if necessary)	<input type="text"/> -----	Unknown
13. Does the proposal contain any Ideographic compatibility characters? If YES, are the equivalent corresponding unified ideographic characters identified? If YES, reference:	<input type="text"/> -	No